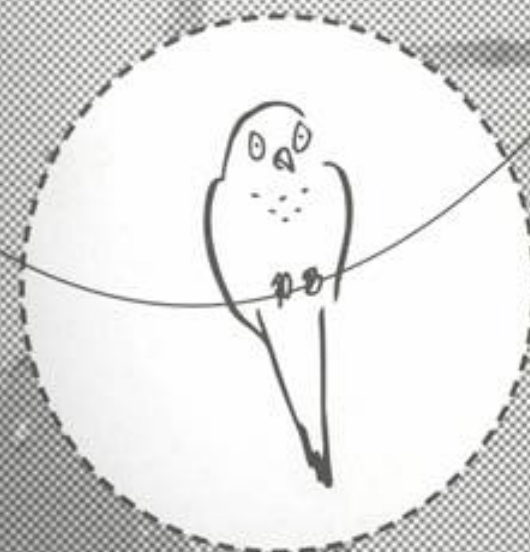




졸업하시겠습니까

Vol.1
조롱이



차례

[발간사] 좋은 조롱이는 산 조롱이.....	3
알몸뚱이로 집단의 명예를 수호하는 연대생이여.....	4
나의 지난-한 취업기.....	너프 5
실패를 기다리며.....	수성소년 10
[대담] 나는 왜 걱정을 멈추고 '조한키드'가 되지 못했는가.....	조롱이 vs OPITK 13
나는 나는 자라서.....	Saturn Yun 18
만화	
바퀴와 딸과 나.....	간을 19
병동기.....	31
병목(病木).....	44
〈바퀴와 딸과 나〉 노트.....	영화 56
(특집) 학생이라는 정체성에 대하여	
소비자-학생의 인생수업.....	왜가리 58
나와 하다와 코뚜레.....	간을 63
사후약방문과 시의 소비자들.....	왜가리 68

좋은 조롱이는 산 조롱이

잡지 "조롱이"는 '학교를 졸업하며 원대한 포부를 세웠으나 별일 없이 졸업하고 현재 별일 없이 생활하고 있는 자, 혹은 졸업을 앞두고 원대한 포부를 세우고 있으나 종이가 부족하여 적지 않는 자, 혹은 졸업은 까마득한데 친구들은 자꾸 자꾸 빠져나가 마음이 신산한 자들'을 위한 프로젝트였다.

조롱이란 매목 수리과의 조류와 새장 조롱(鳥籠)을 의미한다. 이 중의성은 졸업이 학생에게 자립의 시작인 동시에 그에 매일 수박에 없게 만드는 불안한 현실의 인식조건이 됨을 상징한다.

전달되지 않는 말의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이 모여 졸업생과 재학생을 잇는 글들의 통로를 내고자 했다. 우리가 졸업 이후에 팽개쳐진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운 삶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거나, 그에 부딪혀 제대로 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함부로 빠꾸기를 날릴 수 없는 시대, 우리는 단지 조롱이를 날려보았을 뿐이다.

오랫동안 기다림을 보편적인 자세로 믿고 살아왔다. 경주마가 일등으로 들어오길 기대하는 것처럼. 결승선에 말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폭발하듯 앞으로 뛰어나가기 위해, 검은 패딩의 끈들을 제치면서 "와! 잡지마(말 이름)!! 잡지마가 최고다!!"하고 법석을 떨기 위해서, 알코올이, 질병이, 사람이, 사물이, 기술이, 지식이, 언어가 나를 여기에서 저기로 데려가 줄 때까지 대기하

고 있었다. 이것은 좌절의 과정임을 알고 있다. 실은 알코올이든, 질병, 사람, 사물, 기술, 지식과 언어든 모두 나에게서 비롯된 바이기 때문에. 나의 웨이팅은 왼손이 오른손을 붙들고, 오른손이 왼손을 끼고 "우리 어디로 갈까?" 머뭇거리며 깍지를 쥐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간을은 조롱이를 준비하던 중에 소파를 하나 깨서 소파를 하나 만들었다. 하나를 부수면 다른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 하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를 깨부시는 것이 우리의 새 원칙이 되었을 때, "간을은 한술에서 초성을 하나씩 넘긴 넉네임"이라고 했던 자기 소개를 떠올렸다. "어떻게 옮길 생각을 했대? 어릴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나봐."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고 했다. 꿈보다 해몽이랄까. '옮긴다'는 개념은 아주 적절하다.

영역마다 제각각 다른 이름들을 쓰는 것은 새로운 이름 아래에서 전의 이름으로 모인 기억들을 정렬하는 것과 비슷하다. 금번 우리는 '조롱이'란 이름을 쓰고 서로의 경험과 기억들을 물어다 옮기기를 도맡아 했다.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 그리로 나아간 게 아니다. 우리의 경험들은, 기억들은 조롱의 웃을 입고 나서야 조롱을 벗어난다.

오늘은 오늘의 조롱이가 난다. 조롱이는 오늘 날개를 편다. 죽은 조롱이는 죽은 조롱이다.

올해 수능이 이제 막 끝났네요. 제가 학교 들어와서 느낀 연대생들의 특징으로는 입시 이야기만 나오면 활기차진다는 것이 있어요. 하향지원을 했던 상황 지원을 했던 다들 지원한 전형과 수능 점수를 곱아가며 이야기꽃을 피우더군요. 내년엔 들어올 연세대 신입생들도 지금의 기분을 꼭 끌어안은 채 송도로 내려가 기숙사의 긴긴밤을 지피는 연로로 쓰겠죠. 그러니까 이젠 단지 불쏘시개일 뿐이라고요.

지난 학기에 “한겨레”신문에서 연세대 학생들이 입학성적으로 재학생을 차별한다는 기사를 실었다고 해요. 심지어 그 기사를 쓴 사람은 같은 연세대 학생들이었다는군요. 학내 자치언론인 “연세통”이라나. 게다가 문제가 된, 대학입학전형들 골품제에 비견 인터넷 게시물 출처가 “세넵”이었다던데. 거기 일베나 다름없는 쓰레기 하

도? 정작 차별을 할 만한 충분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필 20대의 허접한 우월의식만을 타겟 삼아 혀를 굴굴 차고 있다면, 뭐랄까 우스운 일이라는 하죠. 가능하다면 학벌의식의 싹수는 학생 때 미리 관리해두도록 해요.

또 하나 우스운 건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 간 차별과 전형별/학과별 차별은 다른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는 거예요. 학과나 전형 간 입학 점수의 차이보다 캠퍼스 간 입학 점수의 차이가 훨씬 크다는 사실로, 또 지리적으론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둘이 함께 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나요? 무엇보다 기사에서 묘사한 ‘제2캠퍼스’란 개종 뛰어난 학생들을 일부 신촌으로 옮겨 보내주는 에스컬레이터식 포스트-입시전형(소속변경)의 통로잖아요. 소속변경 후에도 학년에 원주캠퍼스 출신임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밝혀

구성원들을 도마뱀꼬리처럼 때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학벌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파시즘의 좋은 시절은 아예 다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분명히 시대가 바뀌는 것을 느낄 텐데도 맨몸으로 연세의 명예를 지키려 하는 용사들이 전장에 나왔어요. 이들은 연세 재학생임을 대문에 내걸은 페이스북 계정을 주무기로 ‘연세통이 사실을 왜곡했다’, ‘사회의 문제를 연세의 문제로 만들었다’며 비난을 퍼부었죠. 아니, 망신당할 짓을 한 건 세넵의 일부 학생들인데, 왜 그걸 지적인 연세통을 까는 것일까요. 말씀해 나오는 대로 ‘일반화의 오류’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사란 게 다 특출한 개인의 사건에서 출발하는 건데, 또 연세통이 연세대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매우 일반적이라고 서술한 것도 아닌데, 그

알몸뽕이로 집단의 명예를 수호하는 연대생이여

치장이라고 소문이 자자한걸요. 그래요. 우리가 ‘입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하지만 점수 조금 모자란다고 사람을 따돌리거나 동문 취급 안 한다고요? 설마! 조모임이라도 같이 하다가 아무래도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싶을 때 불현듯 떠올려볼 수는 있겠죠. “아, 개 무슨무슨 전형이었어!”

차별의 기준,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봐요. 수능 성적은 노력과 능력의 결과일 테니까, 그것 때문에 사회에서 받는 취급이 달라진다면 차별이 아닌가요? 회사에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을 뽑는다고 했을 때 학력을 참고하는 것은 차별인가요, 아닌가요. 인격적인 모멸만을 차별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의 세계에서뿐입니다. 아무래도 대 학생으로서 같은 학교 학생을 달리 대우할 만한 기회는 별로 누릴 일이 없겠죠. 기껏 해봐야 마음속에 눌러두고 이따금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정

년 것은 정말 ‘특종’입니다. 앞으로 원주캠퍼스 학생들의 신촌 진출을 꺼리는 학생들은 와이백에서 상대방의 학번만 눈여겨보면 되겠어요. 이들이야말로 진정성 넘치는 차별의 주체! 하지만 신촌 캠퍼스 학생으로 받아들여놓고 그 차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학교 당국은 대체 무슨 생각이죠?

저는 전형별/학과별 차별은 결국 캠퍼스 간 차별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해요. 연세라는 이름에 위협이 되는 제2캠퍼스의 낮은 브랜드가치에 대처했던 방식으로, 이제는 인콰이티 낮은-그리고 ‘아웃풋’도 낮은 가능성이 큰-학과와 학생들을 배제하려 들고 있는 거죠. 이젠 과거 공고하게만 여겨졌던 대학명 기준의 학벌이 취업난 속에서 경제적 생산성을 기준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동입니다. 연세라는 이름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안나의 위치라도 보존하기 위해 덜 중요한

런 비난은 좀 지나치다 싶습니다. 연세대 학생들이 연세통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린 이유라면 역시 파급력 때문일 거예요. 세넵 같은 동통에 빠져있다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지금 연세의 브랜드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집내어 안전하게 드러내다니, 그것도 그 악명 높은 ‘운동권 기관지’에! 이런 고안 놈들.

안타깝게도, 일부 용사들의 성숙치 못한 행동은 연세의 대외이미지를 더욱 하락시키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아무래도 마음 한구석이 편한 일이 아니겠어요. 취업전선에서 연세란 이름의 효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학생들이 출선하고 나서서 연세를 옹호하고 연세인으로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풍경이요. 아마 몰락한 왕조가 피난길에 올랐을 때 마지막까지 맞서 싸우던 의병들의 모습이 꼭 저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의 지난-한 취업기

너프

혹시 취업을 한 선배나 동기나 친구나 후배 기타 등등에게 취업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다. 내가 들은 대답들은 대충 이랬다. 1. 힘들지만 될 사람은 된다. 힘내라. 2. 너만의 독특한 점을 어필해라. 누구나 갖고 있는 스펙 소용없다. 3. 죽을 만큼 열심히 해라. 사회는 만만하지 않다. 4. 너는 걱정할 필요 없지 않을까? 나보다 능력 있잖아. 5. 이게 다 새누리당때문이야! 어떤 내용이든 간에 듣는 사람이 가히 기분좋은 얘기는 아니며 문제의 해결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취업준비하는 친구들이 조용히 시야에서 사라진다면, 보통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인 경우가 많다. 나도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사람 피하면서 취업준비했는데, 그 듣기 싫은 취업기를 쓰라고?

물론 할 얘기가 없는 건 아니다. 면접을 볼거나 떨어지거나 하도 속이 상해서, 몇 명 보지도 않은 블로그에 ‘왜 내가 힘든지’를 일기처럼 적어둔다던가 술 마시고 페이스북에 뭔가를 짜질러놓은 적이 적지 않, 아니 사실 꽤 많다. 취업은 가해자가 불분명하고 피해자만 양산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짜증내고 싶어도 대상이 없으니 한탄 쌓이고 할 말이 쌓인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 얘기를 취업준비생한테 할 수는 없는 노릇, 지금은 난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었으니 까 배부른 사람의 과거 추억 얘기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속을 긁지 않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취업할 때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는 취업 이야기니까.

사실 우리는 서로 어떤 방법으로 취업을 준비하는지 잘 모른다. 면접준비 모임에서나 가끔 편린으로 맛보는 정도를 제외하면, 서로가 어떤 직장을 지원하는지, 어떤 자소서를 쓰는지, 어떤 부분에서 영혼에 스크래치가 나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서로 나누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그저 결과뿐이다. 그래서 볼거나 떨어지거나 라는 결과가 아닌 이상,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물어두기 마련이다. 지금 쓰려는 게 바로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다. 이 글은 2년간 취업이라는 곳에 발 디디고 살았던 사람이 주저리주저리 늘어놓는 생애사가 될거다. 취업과 관련없는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런 취업과 관련없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죄책감 같은 것도 써둘 생각이다. 최선을 다한 이야기보다는 탄짓을 하고 놀았다는 이야기와, 왜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놀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변명이 길게길게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니까, 그냥 소설처럼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취업을 준비하는 누군가에게, 이 글이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특정 직종의 연봉이라던가, 각종 취업 정보 등은 이미 다 까먹었고, 그 당시에도 많이 알고 있지도 않았다. 다만 이런 정도의 쓸모는 있겠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 죽을 만큼 힘든 순간이 있다. 신기하게도, 자신이 왜 힘든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그럴 때 혹시나 이 글을 참조하면 자신이 왜 힘든지, 자소서가 왜 써지지 않는지 정도를 잡을 수 있는 실마리는 되어줄 수 있겠다. 아니면 드림이라도 쳐서 힘들고 귀찮을 때 한번이라도 웃게 해주는 효과라도 줄 수 있게 힘써보겠다.

취업을 어쩌다가 결정하게 되었나

이거 하나 물어보자. 다들 취업, 생각은 하고 사시는지? 그게 생각을 하기도, 안하기도 어려운 주제다. 완전히 생각을 안하고 살기엔 졸업이라는 미래가 한결한결 다가오고, 너무 멀어있다면 대학 4년을 취업사관학교처럼 보내게 될 것이다. 나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편이었다. 대단한 곳에 취업하려는 생각도 별로 없었고, 하고 싶은 직업도 매번 달라졌다. 어렸을 때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 이후로는 뭐 제대로 된 꿈을 가진 적은 없었다. 하고 싶은 것이 없으니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싶은지라도 알아야 직장 윤곽이 잡힐 텐데, 그런 것도 없었다. 공무원인 부모님이 매달 용돈을 주셨고, 주말마다 알바도 했다. 모자란 적이 없으니 한달에 얼마가 필요할지 감각이 없었다. 결혼과 내 집? 애초에 버린 꿈이었다. 그냥 적당히 뭐든 할 수 있을 거 같았고 뭐 해도 특별히 잘 할 수 있을 거 같진 않았다. 한마디로, '그냥저냥 뭐든 적당히 해서 살겠지'

하고 싶은 게 완전히 없지는 않았다.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생각은 대학원이었다. 사실, 졸업 전에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물론 내 친구들이 인문사회계열에 편중되어있다는 것은 고백해야겠지만) 대부분 대학원을 최소 한 번 이상 생각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군복학 이후 어쩌다보니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됐고, 일주일에 한 권씩 책임는 하드코어한 스케줄을 한 일년정도 소화하다 보니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대학교 2학년 이후로는 책 읽은 기억이 반이다. 좋아하는 분야는 주로 과학 철학 정신분석 인류학 미학 문학... 돈 안되는

학문만 골라서 좋아했다. 주변 친구들도 '이리 저리 고민하다 대학원 갈 사람'이라는 시선으로 많이 봤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 어떤 과에 가야하는지 잘 몰랐고, 하고 싶은 공부도 매번 변했다. 문학을 읽다보면 비교문학을 하고 싶고, 사회학 책을 읽다보면 문화학이 하고 싶고, 심리학 책을 읽으면 과학철학이 하고 싶은데 어쩌란 말인가. 가고 싶은 대학원이 계속 변하는데 뭘 준비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냥 디립다 책만 읽던 시절이었다. 언젠가는 답이 나오겠지 기대하면서.

언제나 그렇지만 선택의 순간은 어이없거나 시시하게 찾아왔다.

항상 그렇지만 명절이 문제였다. 나의 학비와 주거를 책임지고 있지만 나의 인생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않으리라 믿었던) 부모님께 넌지시 대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집이 그렇게 가난한 편은 아니고, 웬만해서 내가 하려는 일을 크게 반대한 적도 없는 분이어서 큰 문제까지는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던 사정이 있을 줄이야.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몇촌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팔촌 이내의 친척이 대학원에 갔다가 바람이 들어서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집안을 뒤흔들어 놨다고 한다. 그 유학을 가겠다고 집안 등골을 다 빼서 유학을 보내냈더니, 박사과정 마치고 돌아와서는 뭘 대단치도 않은 시간강사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사실 나로서는 그리 놀랍지도 않은 이야기를 풀코스로 늘어놓으시며, 그런거 하지말고 바로 취직하라는 말을 대뜸 꺼냈다. 당연히 나도, 나는 바람 안 들고 석사 끝나고 취업하겠다고 할 수 없었고(하고 싶은 공부는, 음... 철학 쪽이다.) 그러므로 집안 등골 안 빼먹겠다고 아버지께 약속할 수가 없었다. 돈과 교환되지 않는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자식새끼를 부모님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였고, 나는 나대로 인류의 지성에 한발짝 다가가고 싶은 아들네미의 욕망을 무시하는 부모님께 환멸을 느꼈다. 연성이 끝도 없이 높아지고, 거의 죽네 사네 하는 와중에 어머니는 내가 한번 정신못차리면 계속 정신 못차린다고 대학원에 갈 거면 죽어버린다 어떤 다 하였고, 나는 나대로 분이 받쳐서 당신들 돈 받아서 대학원가느니 돈 벌어서 대학원 가겠다고 소리치고 바로 집 쟁겨서 서울로 올라와버렸다. 그리고, 그게 내 취업시즌의 시작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별별 생각이 다 들긴 한다. 뒤늦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게 공부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든 사기쳐서 대학원 갔어야 했나 라는 후회를 제법 많이 했었다. 대학원 붙어 놓고 말할걸, 돈 없이 공부할 방법을 좀 찾아볼 걸 이라는 생각도 자주 했었고, 사실 당시 생각은 정말 '취업해 우선 돈 벌고, 회사와 공부를 병행하며 차근차근 대학원 준비하자' 라는 거였다. 실제로 대학원을 갈 생각은 없지만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수유너머 비스무리한 컨셉의 무언가를 만들기도 했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나올거라, 우선 넘어가고. 아무튼, 나의 취업은 그렇게 의도치 않게 '밀려나서' 시작되었다.

취업을 시작하는 방법

2012년 설은, 1월 말이었다. 그리고 난 첫 직장에 3월 5일 입사했다. 최초의 구직 기간이 약 한 달정도였던 셈이다. 지금 생각하면, 역세계운 좋은 케이스에 속했다.

내가 생각하는 취업은 간단했다. 사람이 필요한 곳이 있다 →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본다. → 되면 성공 안되면 재반복.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없으니 업종이나 부서는 상관 없었다. 영업도 써봤다가 관리직도 써봤다가 현장직도 써보고 진짜 다 써봤다. 급여?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야 하는지 감도 없었다. 아니 사실 직장인이 얼마만큼의 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 지금이야 대충 내가 자립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돈을 써야 하겠구나 라는 감이 잡힌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돈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

계속 쓰다보니 느끼는 것은 있었다. 쉽게 말해 '누울 자리'가 보였다고 해야되나. 당시에 난 토익성적이 없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력서를 쓸 수 있는 기업이 반에 반토막이 났다. 거기에 어떠한 이중전공도 하지 않은 순수한 인문대생이었다. 그러다 보니, 의도하건 의도치 않건 내가 쓸 수 있는 기업은 크기에 관련없이 토익점수를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깨어있는 기업들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쓸 수 있는 곳은 출판사, 잡지사, 벤처기업 정도였다.

제일 처음 붙은 곳은 잡지사였다. 커피 관련 잡지였는데 동네 카페에 가면 꽤 자주 놓여있는, 유명하다면 유명하고 아니라면 아닌 잡지였다. 사실 커피를 워낙에 좋아하고 직접 볶아서 내리 먹는 수준은 돼서, 꽤나 자세하게 이력서를 썼기에 '웬만하면 될 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던 곳이었다. 이력서에 과거에 했던 커피 포스팅 주소나 카페쇼 관람 사진같은것도 집어넣을 정도로 꽤나 공들여 썼던 기억이 난다. 다행스럽게도, 이력서 붙고 면접에 갔는데...

문제는 연봉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면접관이 받을 수 있는 연봉과 대중의 근무 조건을 말해 주는데, 한달에 두 번 주말 출근과 월 150만원이 안되는 월급이었다. 우선 면접자리에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면접 이후 며칠 간 여길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다. 월 130 받고 좋아하는 커피 취재하면서 글 쓰고 살아 봐? 그래도 맛있는 커피는 진탕 먹겠지. 아 그래도 최소한 기자라면 뭔가 있어보이긴 하겠구나. 내 글이 정기적으로 잡지에 실린다니 잡지 들고 좀 자랑하고 싶기도 하겠어. 그런데 월 130이 무슨 숫자지? 내 용돈이 130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이돈으로 부모님 용돈드리고 월세내고 쌀 사면서 살아야 되는 숫자인가? 그런데 생활비가 얼마가 되어야 살 만한 거야?

이게 아마 내가 돈과 근무조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최초의 일이었을 것이다. 회사는 우선 붙고 봐야 하는 것이었지만, 붙은 다음에는 조건 하나하나가 또 걱정이었다. 결국, 고민 끝에 잡지사에 다닐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잡지사 쪽 이력서는 다 끊었다.

이력서를 쓰고, 이력서에 떨어지는 생활이 반복되면 보통 두가지 경향이 나타난다. 첫 번째가 겁을 먹는 경우다. 자꾸 떨어지니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 취업에 대해 공부부터 시작하게 되고, 끝도 없는 준비를 해야 취업에 붙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준비없음에 절망하는 케이스다. 두 번째는 정말 막나가는 것이다. 에이 시X 이라고 외친 다음에 아예 형식에 벗어나는 이력서를 쓰면서 얼마나 자신이 세상에 돋보이는 인간인지 드러내려고 노력하게 된다. 나는 유감스럽게도 두번째 케이스였다.

웬지 이정도 정성을 들였으면 면접이라도 붙여주지 않을까 싶던 이력서들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제대로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날이었다. 쓸 이력서가 밀려 있는데 편집하긴 귀찮고 해서, 정말 한번 막나가보자고 어느 벤처회사의 이력서를 반페이지로 때워버렸다. 그때 이력서 서두가 이랬다.

놀랍게도 결과는 합격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다른 면접자들 다 보고 결재도장 찍기 바로 전에 모 팀장님이 그래도 예 얼굴이나 보자 싶어서 면접을 봐서 붙여준 것이라 했다. 웃도 학교에 있다 바로 가서 아주 일반적인 캐주얼이었는데, 그것마저 플러스였다고 한다. 오전에 면접보고 오후에 합격 전화가 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모로 운 좋은 케이스였다.

자기 소개

회사의 채용공고를 본 지 30분만에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채용공고를 본 순간 '이건 혼신의 힘을 다한 자기소개서로 답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정자세로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려대고 있었습니다. 아, 혼신의 힘을 다하기 위해서 이력서의 형식은 최대한 저를 드러낼 수 있는 형식으로 고쳤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의 장점

교육과 기획에 대한 저의 장점을 줄줄 서술할까 하다가, 역시 사람은 직접 봐야 안다는 생각에 저의 남은 매력 포인트는 비밀로 남겨둘까 합니다. 아니 안 불러주시면 놀라라도 갈 생각이니까, 주저 말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어떤 인재인지는 보는 게 더 편하실 테니까요. 저 또한 그게 더 편하고, 그러면 곧 뵙겠습니다.

농담 같지만 딱 한번 저렇게 썼다. 물론 이런 식으로 이력서를 쓴 적은 이 전에도, 이 후에도 없다. 저렇게 쓴 이유는 - 1. 어차피 벤처면 뭐는 예들 뽑을 것이다. 2. 에이 씨 길게 써봤자 다 떨어지더라 3. 어떤놈인지 궁금해서라도 면접에는 부르겠지. 었다.

G사 - 연봉 2400, 벤처기업, IT 교육 관련, 그렇게 나의 첫 직장생활이 시작되었다.

(계속)

실패를 기다리며

수성소년

나는 수성소년이다. 2013년 3월에 CPA를 한다고 휴학했고 교재는 전혀 사지 않았고 극본과 소설 공모전을 준비했다. 나는 출근하지 않고 먹고 살 방법이 있지 않을까 궁리하는 한량이었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창작활동은 매력적으로 보였다. 창작활동은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물론 비유적인 의미에서 기회비용, 노력이나 재능 같은 자본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진짜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만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2013년 9월부터 11월에 레진코믹스에서 <잡채킬러>를 2014년 2월부터 5월까지 <소녀, 소년을 켜다>를 연재했다. 그리고 고료가 발생하지 않는 만화를 <http://blog.daum.net/subpurgatory>에 올렸다.

그림이 유료연재를 할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스토리작가를 지망했고 만화가 마사토끼의 방법을 따랐다. 그는 스토리 전달에 집중된 콘타를 인터넷에 올려 지명도를 얻은 뒤 작화가를 구해 정식으로 연재했다. 내 시도는 실패했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작용한 부분은 장편을 꾸려가지 못 하고 일회적인 아이디어를 소비하는 단편만을 올린 데 있다고 본다.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실패란 말이 자극적이긴 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것으로 창작활동으로 일정한 수익을 내는데 실패했던 의미이다. 창작활동으로 일정한 수익을 내는데 실패했다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자괴적인 성격상 남은 인생 동안 스스로를 패배자라 부르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 이 글은 실패를 대비하여 미리 자신을 위로하는 조문이다.

독자의 수가 출판부수에 달한 종이만화와 달리 웹툰은 접근성이 좋다. 그 덕분에 작가를 위한 의자도 더 많다. 만일 조건이 종이였다면 나의 콘티 만화는 게재할 만한 곳을 찾지 못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의자 수가 늘어난 만큼 의자에 앉으려는 사람도 늘어난다. 1990년대까지 한국작가들은 출판만화를 주로 겨냥했지만 종이매체의 감소로 인해 암흑기를 겪었고 (저출산으로 미래가 밝지만은 않은) 학습만화만이 명맥을 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모색된 웹툰은 대형포털이란 안정적인 체제와 연결고리를 찾아 규모를 키웠다. 덕분에 지망생들은 귀중한 채널을 얻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달리 말하자면 시장 참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이다.

웹툰의 다른 특징을 얘기하자면 그림의 밀도 수준에서 웹툰은 종이만화보다 요구되는 허들이 낮아 1인 작가가 활동하기가 쉽다. 그리고 지면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정된 지면의 효율성을 위해 편집자가 작가에게 개입하는 빈도도 낮아진다. 이 역시 달리 말하자면 데스크는 고료 관리나 스케줄 조정 이외에는 거의 관리를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창작활동이 고독한 길을 가긴 하지만 웹툰의 경우 업계의 피드백을 받기가 쉽다. 드라마나 영화는 프리프로덕션 등의 과정을 거쳐 제작자간의 의견이 교환되며 소설은 문예지 등 비평과 토론이 가능한 매체가 있다.

그에 비해 웹툰 연재처는 편집지침을 갖추고 일을 꾸리는 곳이 아니라 작가들과 독자를 연결하는 유통창구에 가깝다. 댓글은 단평은 될 수 있지만 중구난방이며 체계적인 비평이 되지는 못한다. 창작과정에서 이런 가이드의 부재는 웹툰을 그리는 작가들이 안전한 소재와 패러디, 클리셰에 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내가 그렸던 만화들은 생계를 유지할 만한 벌이를 만들지 못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매력적인 장면의 부재가 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해결책은 단순하다. 매력 있는 장면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근데 왜 난 그러고 있지 못할까?

아침이면 일어나 사무실로 가서 일을 한다. 일은 그리 어렵지는 않다. 어차피 단거계약직 알바로 채용된 일이고 업무범위나 권한 같은 게 클 리가 없으니까. 가끔씩 관리직들이 어떤 날엔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책임의식을 지내야 한다며 감변하면서 수를리는 날엔 알바만 처치를 자각하라고 말할 때면 이게 무슨 영병인가 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일은 힘들지 않다. 기본적으로 작가란 전업이 되기 전에는 다른 일을 병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에 윤하기 쉽지만 부양가족도 없고 서울에서 홀로 하숙 생활하는 나로선 썸씽이가 를 일이 없어 알바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 학자금도 아직 본격적인 상환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고, 일은 정시에 끝나는 편이고 사는 곳도 가까우니까 쏘개서 쓸 시간도 많다. 정말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일하는 틈틈이 시늬를 쓰고 물통을 찌고 이야기를 매체생산자들에게 전달하려고 애썼겠지. 나는 그러지 않았다. 우울함에 자주 뒤섞여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PC방에만 있는 날이 많았고 큰 계획을 꾸리기 위해 작은 기획을 꾸미는 일에 거의 실패했다. 결국 내가 실패하게 된다면 원인은 나에게 있을 것이다. The buck stops here.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노력으로 옮기지 못 하고 있는 건 왜일까? 언젠가 죽을 거라는 허무감 때문에? 허무감은 아닐 것이다. 작가를 꿈꾸는데 적극 참여한 감정 요인 중 하나는 나를 눈여겨보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나를 되돌아보게 하기를 원했다. 허무감이 일정한 파고를 일으키는 건 가능하겠지만 바닷물을 마르게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아마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노력은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은행에서 대출하지는 않는다. 노력하는 기질을 타고나는 사람이라면 기질별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인내심이 약하다. 장시간 동안 노력하는 버릇을 축적하기 위해 교정이 필요할 것이다. 근데 그 과정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나는 몇 년을 더 수입이 불안정한 상태를 헤매 것이다. 지금보다 더 처우가 나빠진 상황에서 더 노력을 발굴하는 게 가능할까?

그렇게까지 굳이 안 되는 걸 붙들고 있는 것보단 차라리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인정하고 심진 않지만 나의 능력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작은 일을 해결하는 정도가 한계인지도 모른다. 커다란 일의 윤곽을 파악하지 못 한 채 그때그때 주어진 일을 처리하고 방에 돌아와 맥주나 한 잔 하는 식으로. 관리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역량을 타고난 것이다. 스스로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창조하는 일과 그 일을 기획하고 지속해가는 일은 나의 수준에 비해 너무 고차원적인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 걸 알면서도 굳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스스로를 착취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려고 있는 건 김영하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나를 착취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오래 착취하면 앞으로 나를 계속 사용할 미래의 나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라도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지를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고 실패했을 경우도 가정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그런 인식에 언적(言的)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썼다.

9월에 나는 복학할 것이다. 그렇게 일신의 변동이 생기면 삶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기 쉽다. 복학하기 전인 여름동안 무언가를 해보고 안 된다면 수성소년이란 이름으로 더 이상 무언가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안 되는 일에 매달리진 말자. 제발.

..

이 시점의 수성소년의 의견은 미래의 수성소년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걱정을 멈추고 '조한키드'가 되지 못했는가

조룡이 vs 오피거주IT업종사자K

2014년 2월 정년퇴임한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의 조한혜정 교수(이하 조한). 그를 기리는 호칭은 '시대의 참스승'에서 '1세대 페미니스트', '대안교육과 대안문화운동의 대모', '생태주의자', '마을부흥회장'까지 다방면에 걸쳐있다. '지구촌 사회의 문화인류학(이하 지시문)' 등 토론 위주의 수업을 꾸준히 열어 학생들과 소통해왔던 만큼, 문화인류학과와 문화인류학과 설립 전 조한의 소속 학과였던 사회학과에 조한이 끼친 영향도 무척 크다. 이를 보여주는 말로 '조한키드'란 것이 있다. 2009년 즈음 가시화되었던 이 말에는 조한의 가르침을 받은 모범생 학생들이 딱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체제에 저항하는 양 군다고 비꼬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런 비아냥은 2011년 이후 조한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수그러들었다. 마을은 저항하는 게 아니라 건설하는 거였고, 여기에 관심을 보여 모이는 사람들은 20대 청년보다 그 위 세대가 많았다. 그리고 2014년 2학기 연세대학교에 조한이 돌아왔다. 명예교수 신분으로 여느 때처럼 지시문을 강의하고 학생들을 만난다. 이 시점에서 나는 2012년 조한의 수업을 들으며 느꼈던 의문들을 떠올렸다. '마을공동체' 프로젝트는 조한의 수업을 듣는 청년세대의 필요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조한이 우려하듯 요즘 젊은 세대는 자율성을 잃은 '좀비세대'인가, 이같은 고민을 안고 2000년대 중반부터 네 번 이상 조한 수업을 들었던 졸업생 오피텔 거주 IT업계 종사자 K씨를 만나 대담을 해보았다.

조룡이 오늘 나눌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조한이 최근 김숙이 관여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둘째는 조한이 평생 추구해온 가치는 '자율적인 개인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율적인 개인들이 어째서 공동체를 이를 필요가 있는지, 또 하필 그게 왜 마을의 형태로 나타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저의 생각은 마을 공동체란 기본적으로 아이 양육을 전제로 한다는 것. 그래서 다수 20대 입장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딱히 관심가지 필요를 못 느낄 거라고 봤어요. 일단 자기 집도 없고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마땅치 않으니깐. 마을에 정착하기보다는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하겠지요.

자율적인 개인 관련해서는, 예전에 조한이 하자센터에서 열었던 자공공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이 있어요. "모든 노동은 다 비정규직이 되어야 한다."고. 조한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할 때 일을 하면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노동성 같은 것을 확보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OPITK 인간이 자율적이 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사회문화적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경제적인 조건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자율적이 될 수 있을 만큼의 문화자본이든 경제자본이든 갖춘 사람은 말 그대로 한 줄이고, 결국 조한이 말하는 대로 모두가 비정규직이 되는 때의 모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일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일을 벌

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들인 거죠. 그런데 그 자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2퍼센트? 98퍼센트에게 불가능한 대안은 대안이라 할 수가 없어요.

조룡이 제 생각에 조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모든 노동은 비정규직이 되어야 한다.'였지 '모든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한다.'가 아니었어요. 2퍼센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98퍼센트도 그런 식으로 자기의 삶과 노동 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이상론이었던 것 같은데요.

OPITK 불가능해요.

조룡이 네. 사실 발언이 나왔을 때 자리에서 반박이 있기는 했어요.

하자센터장이었던 전효관씨가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철폐하라고 운동하는 사람들의 맥락은 그거와는 좀 다르고, 아직 사회가 거기만큼 다다른 것 같지 않다고요. 한국사회가 그렇게 모두가 비정규직으로 살아가 수 있을 정도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비정규직 철폐라는 걸 슬로건으로 쓰는 거지, 투입한 시간만큼 생산 효율이 나오지 않는 사회에 적용하지 않으려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들었어요. 현재 노동시간은 점점 줄고 있고 노동생산성 자체가 정기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일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 하는 메커니즘에서 벗어나고 있는 시기잖아요.

OPITK 생산이 투입한 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건 일부 창의적 사무직에 대한 이야기지, 아무리 세상이 금융화가 되고 IT화가 되도 세상의 기본은 제조업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없으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죠. 그리고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금융비중이 커지면서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거기도 한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나간 공장들을 다시 미국 안으로 불러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조봉이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라고 한다면 고용을 증진시켜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이지, 전 지구적 산업구조 자체에서 제조업이 줄어들고 있다는 데 대한 반응은 될 수 없지 않나요. 제조업이라는 노동의 성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 때문에 임시적으로 불러들인 방편이 아닐까 생각해요.

OPITK 모든 게 이어져 있죠. 제조업이라는 게 세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라질 수 없고 국민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비중을 줄였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걸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조업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텐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은 앞으로도 제조업에 종사할 텐데, 그 일은 정직하게 투입한 시간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조봉이 근데 저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기계화 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론 투입한 만큼 나온다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공식을 만들면 언제나 비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생산량이 좌지우지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산업혁명시대, 한국으로 치면 1970년대와 비교하면 제조업 노동자의 하루 노동량과 노동 강도는 분명 줄어들었잖아요. 그 당시 열 두 시간 일한 것의 효율과 지금 열 두 시간 일한 것의 효율은 다르겠죠. 제조업 공장이 필요로 하는 노동자의 수도 기계화가 심화될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기적으로는 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고용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OPITK 어쨌거나 그렇게 모두가 비정규직이 된 채로도 자신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고용이 100퍼센트가 되어야 하잖아요. 애초에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보다 많거나 최소한 거의 동수여야 유지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일자리가 어찌됐든 줄어들 확률이 높은 시점에서 모두가 비정규직이 된다고

해서 자율성이 생길 것 같진 않거든요. 오히려 더 기업의 요구에 휘둘리는 인간이 되지. 지금 대학생들이 회사를 다녀서 그렇게 타율적인 삶을, 뭐 그게 타율적인 삶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스펙에 매달리는 삶을 사는 이유가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지.

조봉이 다니기 위해서이든 다니고 있기 때문이든 어떻게 보면 조한의 입장에서 같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니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든, 이미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다니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든.

OPITK 근데 어쨌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조봉이 네. 생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이 자율적인 의지가 있어도 그게 충분히 현실에서 마음먹은 만큼 발현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면, 생계에 대한 압박 같은 거에서 나는 어쨌든 거리를 두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한은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반론을 들리고 하는 것 같아요.

OPITK 솔직히 그 사람들은 생산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는, 나쁜 의미로 쓰는 건 아니고, 기생하고 있다고 봐야죠. 분명히 생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전통적인 노동이든 전통적이지 않은 노동이든 노동으로써 가치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가치 생산에 얽매

여 있지 않은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약간의 경제적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 삶의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이란 말이에요.

조봉이 그렇죠.

OPITK 그런데 모두가 그런 방식을 선택하면 누가 가치를 생산하죠?

조봉이 음,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한이 기본소득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그런 소셜워커라고 해야 하나, 전통적 고용관계에서 노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노동도 평가 받아야 하고, 사회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조한이 좋아하는 자율적인 주체들이 사실은 공동체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에게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사회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노동이고 극단적으로는 기생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실은 이 사람들이 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게, 어느 하나에 매몰되지 않게 물질에서 굉장히 많은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조한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OPITK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그런 가사노동이든 소셜워커든 그런 류의 일조차도 그렇게 자율적이지만은 없다고...

조봉이 그런 일만 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

OPITK 아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조봉이 사실 조한이 말하는 '자율적인 삶'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뭔가 구호 같은 느낌이에요. 실체가 모호한.

OPITK 조한이 이야기하는 식의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전 문화예술계에 한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업적으로, 소셜워커라고 해도 예를 들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어졌기 때문에 돌봄 노동을 그만 하고 가겠다고 할 때, 누구를 구할 것이며, 경험이 어떻게 전수될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조봉이 음, 근데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직업보다 유연성이 보장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소셜워커는 아니지만 하사에서 인큐베이팅을 하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만 봐도 다른 기업보다 여성을 위한 휴가제도 같은 것을 더 잘 마련해 주거든요. 생리휴가 같은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쓴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OPITK 그건 일반 기업에도 충분히 있어요. 그건 사회적 기업이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조봉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를 예로 드시는 건가요?

OPITK 저도 생리휴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육아휴직 같은 것은 거의...

조봉이 육아휴직은 또 경종이 다르죠. 육아휴직은 국가에서 밀어주는 거잖아요. 물론 모성보호다 그런 측면에서는 생리휴가나 육아휴직이나 같은 걸로 묶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OPITK 생리휴가가 정착되지 않는 이유가 조한이 말하는 대로 자율적인 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아닌 것 같거든요?

조봉이 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소셜워커들이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하루 일을 뺀다고 치면 이 뺀 거를 대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미리 이러한 '휴가'를 어떻게 대할지 대응책을 마련해놓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소셜워커의 경우 개인의 급작스런 휴가가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다른 노동과는 확연히 다를 거라고 보았고, 마치 대기업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여기는 생리휴가를 사회적 기업에서는 용인해주듯이, 그런 자유도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OPITK 약간 이야기가 새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평소엔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새고 있는 것 같아서. (웃음) 제가 공동체 안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인데, 세대론적인 측면을 생각했어요. 지금의 문제가 갈수록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나이 먹은 세대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비율이 높아지면서, 젊은 층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커져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재현이 될 텐데, 물론

조한의 입장에서 그 나이든 사람들도 소셜워커로서 육아를 담당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수요는 어쨌거나 한계가 있고 또 게다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든 세대고, 나이 어린 세대들은 그 마을 안의 부동산을 살 만큼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마을의 경제적 주도권이나 아니면 여론의 주도권 모두를 나이든 사람들이 갖는 상황에서 부양책임은 젊은 사람들에게 떠넘겨지고 공동체 안에 있기 위해서라도 그 주도권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겨서 공동체 안에서조차 자율성이 보장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조용이 그런데 세대론이라는 것을 적용하기에는 공동체의 상황이 인구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규모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조한이 이야기하는 성미산마을이라든가 뭐 그런 곳이 인구가 그렇게 적지는 않지만,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얼굴도 다 알고 할아버지 세대가 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의 자식이 결국 또 공동체의 일원이 될 확률이 높죠. 오히려 가족 재생산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요.

OPITK 조한이 말하는 마을공동체는 어쨌든 지리적 기반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사느냐는 거죠. 젊은 세대에게 집이 필요한데, 수도권을 벗어나서 강원도 산골에 마을을 짓고 사는 게 아니면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는 거의 다 수도권에 있고, 젊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한 문화적 공간이나 사회적 윤리가 정립된 곳도 수도권 안이고.

조용이 젊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제도라든가 윤리적 규범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OPITK 지금 농촌으로 내려가 산다고 했을 때 최소한의 근대적인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굉장히 권위적인 나이 서열과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윤리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남아 있고, 또 작은 사회의 특성상 여러 가지 범죄들, 특히 성범죄들이 은폐되는 케이스도 많고. 어쨌거나 그 마을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 무리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젊은 사람들이 급해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조한이 말하는 마을공동체라는 게 어떤 식으로든 주도권은 3~40대에게 꼭 있을 테고 그 아래세대의 감정적 희생이든 경제적 희생이든 밑바탕이 되어야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조용이 저는 조한이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도시형 마을'이라고 봤거든요. 성미산마을 경우도 그렇고, 하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널리 알려진 사례들이 거의 서울이잖아요. 서울에서 마을이야기 축제를 열기도 했고. 정릉 같은 경우에는 시골과 도시의 경계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조한이 제시하러던 비전은 시골로 내려가서 기존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는 거라기보다는 서울에서 공동체적 가치가 있는 돌봄의 마을을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는 것 쪽에 가깝다고 봤어요.

OPITK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새로 공동체를 만들려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얻는 이익이 있어야 하

는 거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한이 만든다고 하는 마을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누릴 수 있는 이익이 확실치가 않은 거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본인들은 수혜자란 말이예요. 공동체의.

조용이 수혜자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제1의 이유는 아이 양육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것. 그런 것을 김규형씨 같은 사람은 비판하는 거죠. 자기 자식들만 안전한 무균지대에서 키우면 다냐?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데. 그런 식으로 숨고.

어쨌든 현재 한국교육제도가 너무 싫고, 그런 것 밖에서 새롭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필요를 느끼면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아직 자녀계획이 없는 세대의 경우에는 인터넷 세대니까, 만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취미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고 하는 게 더 익숙한 방법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운동이 젊은 세대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게 취향의 문제를 도외시해서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었어요. 거주지를 기반으로 삶의 연속성이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OPITK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에게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고 마을공동체에서 낮

은 시급을 받으면서 돌봄노동 등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불만을 가졌던 게기로 돌아가 말을 하자면, 제가 하자나 성미산에 대해 이거 어쨌거나 이야기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당위에 대한 것만 있지. 정작 그 당위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행동하거나 희생을 요구받는 사람들의 생계나 미래에 대한 대안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조차 볼 수 없다는 게 제가 반발을 하는 이유였어요.

조용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든가 강요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행동에 나선 사람들은 하나의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아까 조한이 말하는 자율적인 삶을 사는 주체들이 사회구조에 기생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주체들이 오히려 희생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OPITK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요. 제가 기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건 일단 소셜워커를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건 다른 것 같고요.

조용이 문화예술인을 말씀하신 건가요?

OPITK 그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말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소위 힙한 생활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정한 직장

없매이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뭐 글을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소위 자율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되는 사람들?

조용이 특정한 직업이 없고, 옮겨 다니면서, 글을 쓴다?

OPITK 엄밀한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요.

조용이 이젠 시간강사네요. 시간강사.

OPITK (웃음) 시간강사는 약자죠.

조용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문화자본이나 상징자본, 뭐 인기라든가, 그런 것으로 특정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OPITK 네. 그런 삶의 방식을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기생이란 말을 나쁜 뜻으로만 쓴 건 아니었어요. 그냥 기반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한 거고.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조용이 이런 말씀 드리면 기본 나빠하실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세상은 제조업 기반이고 모두가 문화예술인으로 살 수는 없다.' 이것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반대 입장 논리라고 달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병역거부자가 되면 어떡하느냐. 군대에 가는 사람도 있어야지, 우리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는데.

OPITK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

다.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조용이 그런데 조한의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내지는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건가요?

OPITK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조한이 말하는, 제가 기생한다고 표현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했을 때, 별로 좋은 세상은 아니겠지만, 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만 존재하는 세상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없는 세상은 나쁜 세상이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는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조용이 그런데 조한이 이쪽 삶만 조명하고 거기에만 진정하고 참된 삶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OPITK 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탱하기 위한 거대한 구조가 밑에 있는데, 그 구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죠.

조용이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한이 특정 삶의 방식을 열렬히 전파한다고 해도, 결국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늘 소수였잖아요. 그게 꼭 자본이나 능력의 유무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마을공동체 안에서 권력의 위계가 과연 나이든 사람들에게 쏠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에 대한 증언은 현장에서 한창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나는 자라서

좀 더 제대로 된 사람이, 건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 살인, 강간, 사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해대면서 남들 소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 아무래도 좋으니 평생 아랫목에 배 깔고 만화책 보다가 배고프면 브루스터에 라면 끓여먹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뭐가 나쁜가, 그런 생각을 했다.

Saturn Yun

어른들은 아무래도 어렵다. 그들은 끈대이거나 따까리거나 개새끼거나 그 전부다. 어른들에 대해서 무서운 점이 있다면, 그들 또한 한 때 어른이 아닌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나 같은 사람도 끈대들에게 충분히 시달리며 세월이 흘러서 그들 중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좀비 아포칼립스가 따로 없다.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좀비 쪽에 가담하고 싶다.

어른들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끈대면 어떻게 따까리면 어떻게 개새끼면 어떻게겠는가? 자기 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부터는 누구든 셋 중 하나가 -최소한- 되어야 한다. 철도 들지 않았으면서 끈대인 사람도 있는데 뭐, '철은 들었지만 어른이 아닌 상태'란 없는 걸까. 대학에 오고 나선 어른들도 내게 별 소리를 안 하게 되었지만, 끈대들만큼은 지긋지긋하게 들러붙는다. 간혹 존경할만한 끈대들을 보기도 한다. 그들이 말하는 '상식'과 '교양'을 내면화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좀처럼 자기 세뇌가 안 된다. 어른은 못되나 보다.

한 때는 진지하게 세상을 흔들어 놓겠다고 마음먹기도 했다.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니깐, 가끔씩은 수단 때문에 목적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으니깐, 어쨌든 무언가를 해보는 데 '할 수 있으니깐' 이상의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뭔가 두근두근하고 어깨가 넓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말만 한심 년쯤 했다. 행한 폭력은 모조리 정당방위였고 하지 못한 일만큼의 평계가 있었으며 좀 복잡한 일이다 싶을 때 꺼내 드는 카드의 이름은 방어기제였다. 솔직히, 편했다.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은 내가 편하고 즐겁게 사는 것로부터 시작

된다는 멋진 핑계도 생겼다. 살인이니 강간이니 하는 것들은 폭적도 수단도 아닌 '남의 일'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사춘기가 끝난 건지, 삶이 끝난 건지 알 수 없는 시간만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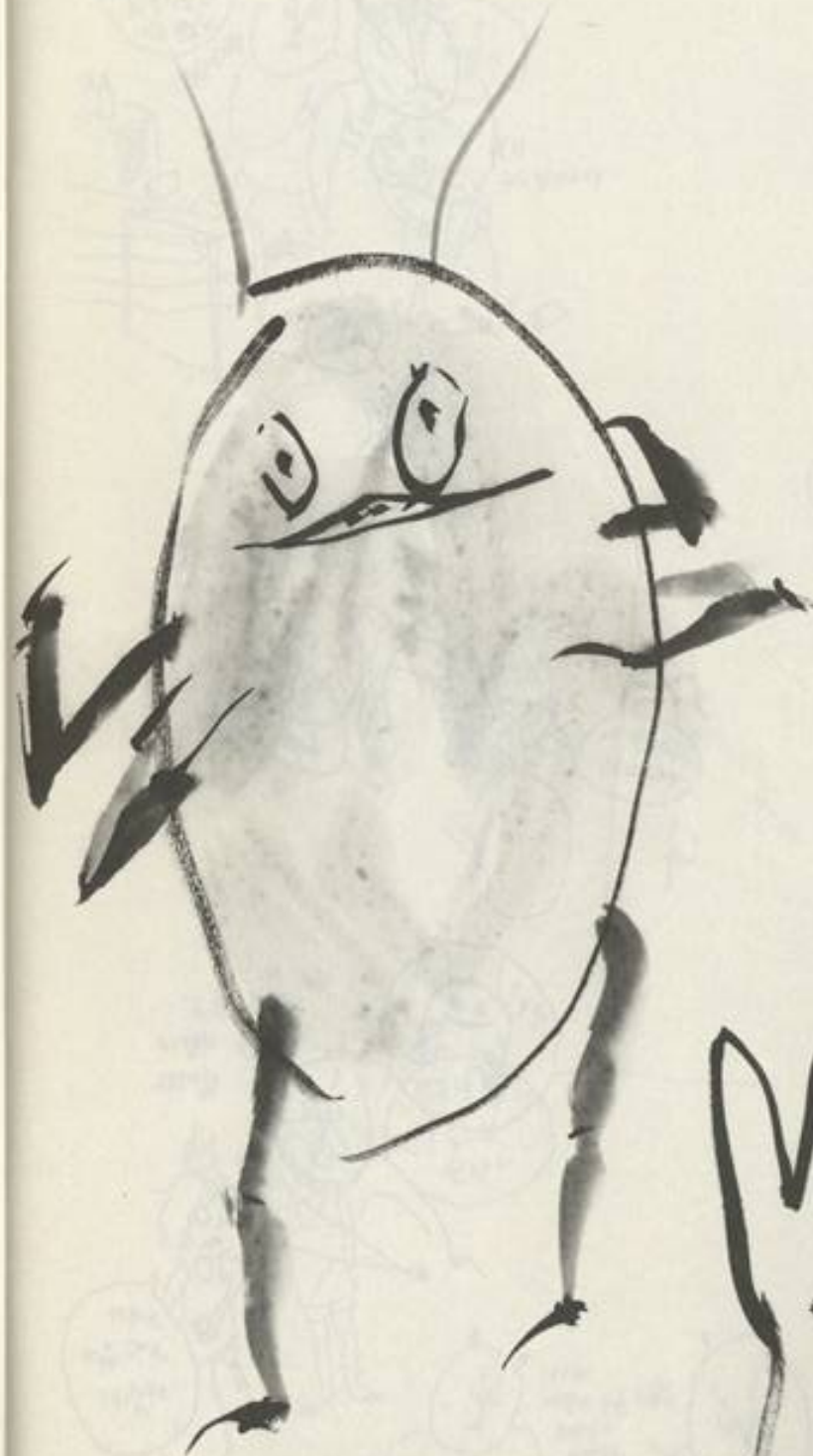
그래서인지 몰라도 모니터 속 세상, 활자 밑의 세상에서 공상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제일 즐거웠다. 같은 실연이어서도 활자 밑 그것은 내 그것보다 훨씬 극적이고 동적이고 생생적이었다. 현실이 공상보다 나은 점은, 그것이 현실이라는 점 밖에 없었다. 나는 좋은 대학 다녔고 나를 독려했고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재미있게 산다고 자부했지만 욕을 걸 사람도, 일생일대의 적도, 온하 제일의 능력도 없었다. 현실의 유일한 좋은 점은 라면이 맛있고, 모니터는 해상도가 높다는 점이었다. 부끄럼 없이 평생 방구석 폐인이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되지도 못한 어른의 찌꺼기가 달라붙었다.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좋은 일 하면 될 것을, 끝내 그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빚어먹을 졸업이라는 것을 좀 해야 하는데,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었고 하지 않을 것임만을 알겠다. 졸업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주어지는 개근상 같은 것이다. 나는 무엇이 될까, 확실히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그 생각이 확실히 틀렸다는 것만 알겠고, 이대로 평생 어중간하게 있을 공산이 높다. 나는 이런 나를 권장한다. 진지하지 마라, 너무 나대지 마라, 그렇다고 방구석에도 처박히진 않으니까 모든 것을 비웃는 열외자로 살아가라고, 쓰레기지, 한 마디로.

한 때는 아래의 말을 좋아했다. 실은 지금도 그렇다.

술이 마시고 싶다고 파란을 일으키는 녀석도, 자신만 재밌는 일을 다 해버리고 인생이 모래알판이라고 중얼대는 가짜 교사도, 언제나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놈들도, 그들 모두를 혼쭐나게 두들겨 패서 그 안에서 비겁한 귀신들을 쫓아내 그들을 모두 물고기나 돼지로 만들어버려라. 강철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인간을 단련시킨다.

-사키노하카라는 검은 꽃과 함께 中



나
크
나
말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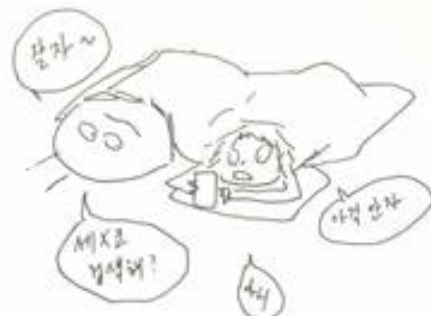
어느날 처음 모닝엔 하러 나왔지.



우리는 한 팀처럼, 한동처럼 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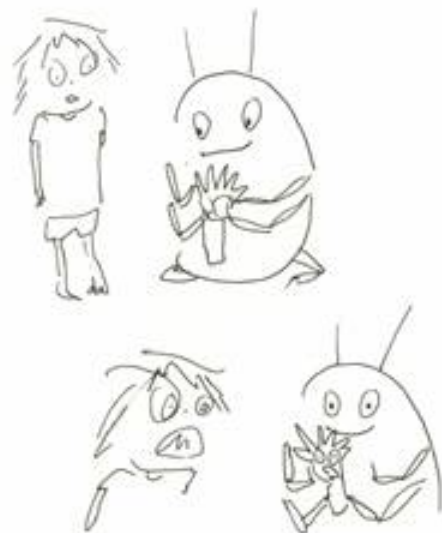


밤 안에서 잠드는 자들은 무슨 대단한
저항이냐고 뭐고? 걱정 무슨 일이 있어









야, 니들 보인 아예 안보이냐?





청양로 무리는 한밤. 한 공이었다.



오늘은 아주 날씨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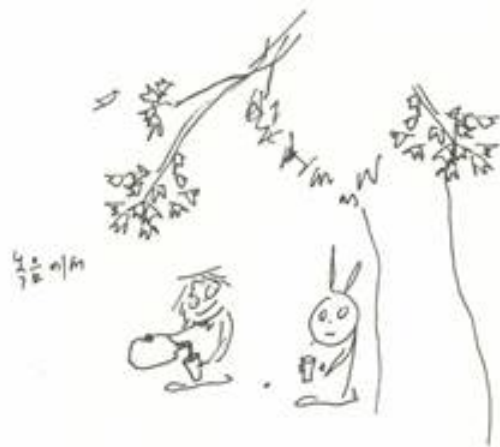
오늘은 좋은 전도가 있다



수업 시간에 친구



꽃 피고 있다



남편 치이서



한 때 나는 '산리 순심' 하는 거 갖고 싶어서



노력은 무의미하다



오늘도 새



좋은 더 기분 좋게 물어 알고 싶었다



그래서 묻어 생각하러 나왔다



그리고 공식적 서신 형 숙지시켜서부터



자연스럽게 쓰여진 것이다



첫 번째의 맛, 첫 술의 맛 그보다 많이 맛있다



오늘도 새



전 이걸을 부끄러워 사서 마셨다

모양 두 개



나는 완전히 숙독한 명장한 작 금다. 다만



원래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생각하

이제는 끝이다, 라며 써서 지는 마음이라고 쓴다.



하지만 나는 손을 마저 댔다.



이제야 먹은 약재



모든 세가 손 수평으로 관찰한다.

인생의 방향을 잡지, 4월이 드디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습의 맛은 다지 않는다.



반면, 나는



그 가 평생에 걸친 인생을 회상해 주었다.



그의 생애는 이렇게 끝났다.



종도 앞에 작별할 줄 모르는 그의 말투.
말을 수 있는 것이 고맙다.



방식 2의 된구독이 허영심 혹은 그릇된 착아.



유 인종인 안도했다.



무인자로 만든 새것으로 우리의 삶이 중요했다.



우리의 기쁨은 고도의 의미는 불쌍해서 지금도 잊어버린다



아직도 버리지 못했고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



시간이 강압으로 권했고



우리의 시간은 그리워 타임이 아니라



평생의 손이 고요하고

끝났다. 우리끼리 공동의 원망이



황상 고기 맛있다



동은 아저씨 말대로만 할게요



위파는 하루 3회로 제한



나도 여기에 속하러 갔어



우리도 어쨌든 아저씨를 싫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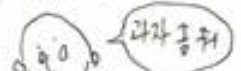
종파외계인은 말하길 잘 모르며



인간 3회 안 함



나도 이들과 같다



1. 아저씨
생물
아름답다

3회 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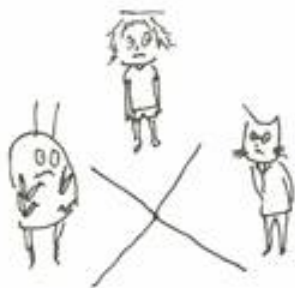
← 무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의 신으로 개조된다

자신이 세력없어만



우리는 항상 인생의 다른 지점으로 재배치되고 있다



상방으로 대방을 식사로 승화시키고 비광을 생성



자신이 속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은

죽음에 이르렀다



그는 나에게 역전이 올 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비광이 그리워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이 독대 생활은 영문에도 통하지 않잖아



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알콜 환자는 정신질환 환자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 생활하였음.



다른 환자들이 나를 가려주었다.



다만, 산책이 불가능



그때서... 바로 이따가 되겠다.



우리도 부러 죽고 싶고 지내왔던 중환실로 부러



비웃었다. 웃는 것처럼.





네 여기에서 벗어나면 역시 오게 될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뭐든지 정성껏
해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



별명과 반대되는 행동도 하면서.



공직적인 모습과



친목을 경계했다.

이런 종류의 정당한 처벌도 보이게 되었다.



동원 지대로 3번으로 승선한 '시퍼' 있었다.



라고 말했을 당시의 심리가 참 기묘하게 보인다.



그러나
악도, 병원은 다 끊어버렸다



북한을 정계로 서둘러 서둘러 등대했고.
차츰차츰



이제 익숙한 장면이 생겼다.





우리는 단 둘이서
있었다.



영구의 자국 위로
세 방바닥이
여기까지
펼쳤다.



이
영구를
외로움
같이
있었다.

2244 우리는 (영구 영구)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



영구!
영구!

病木



저녁이 집에 와서
먹어야겠다.

대신 공방에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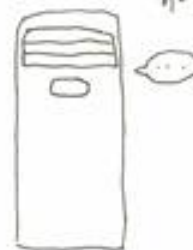


공방장이 주는 봉선
정식으로 찜마령
먹었다.

공방은 사라졌고, 두리도 손이 굵아지면



위마를 깨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역시도 좋았다.



나도 나도 이제 나왔다.



물론 정신은 본래의 동에 갇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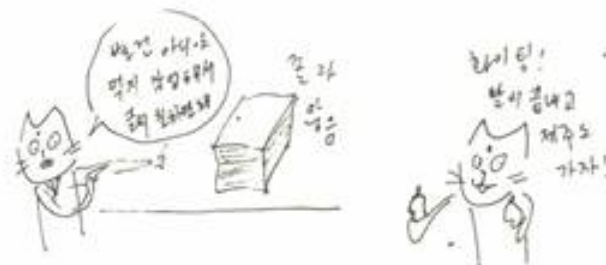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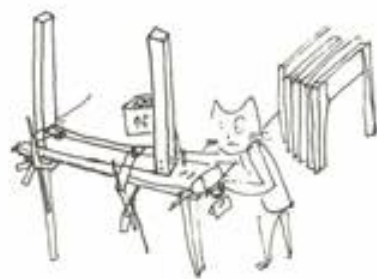


물론 하지만 이것의 발은 움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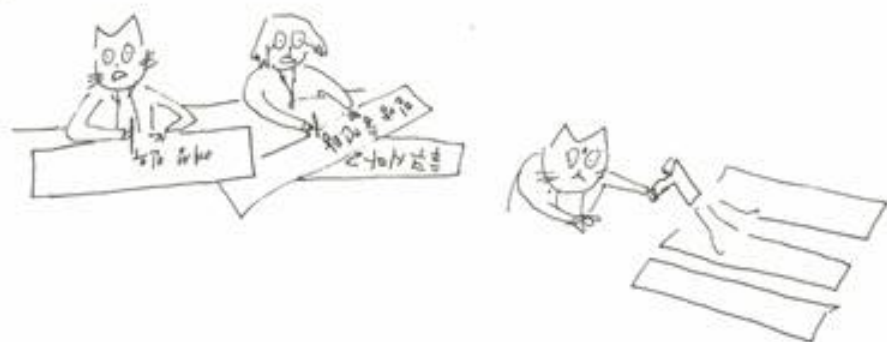


귀가 아플지도 모르지만 기계 소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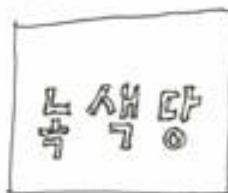
한 30초 세 명씩 한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도움도 있었어



정확한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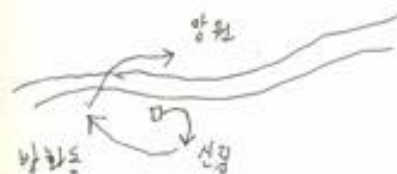
또 도움도 있었어



완성했다. 200여개의 판자와 칸.



한이팅이 집집마다 내려나 주었다



영등포 고가의 주방들이 열려져있고



꾸벅 꾸벅 졸았다



터프하고 싶었어. 좋은 지로 샀었다. 그 말이 무리는 생김새의 레이본과 네 개, 혹은 다섯의 예쁜 티아를 조합했다.



레이본 디자인 하도록 조합된 예 마다 시간이 흘러갔다



이번 일이 끝나면 놀러가자! 눈 많이 내리겠다

그러나 전마르
다음은 해를 비늘이로 왔다.



중심한 이음에 위치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악자의 시선을 보았다



한이이 두려서 있다.
그날 해주는 이상기온으로, 25°C 까지 올라갔다.
우리는 반쯤로 입고, 비아사우 들어 갔다.



커피와 스마일의 대 같은 아우들이 많았다.



태목에 쓰러져 부서가 바깥으로 뻗은 나무



우리가 길을 걸으며 하명에서 이마로 치아를 깨웠다.



밤이 훨씬 아쉽다.



열 한 번의 맥주로 더 살다.
아, 그건이 끼워서 내려 아쉽다.



게스트 하우스에서 직접 내린 커피라니!



그때, 야밤으로 보이는 두명이 들어왔다.



여덟개의 커피병새라,
커피 내리 비주얼이 당당한 사람들.



그리고 동화스텝에

어떤 계일이 사악해졌다.



그리고 카



라고 할때마다 복수하는 물감이 나왔어.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많은 장난을 세이 많은 거짓말들.
많은 농담을 세이 전마 사실들.



저는 나쁜 용서해 내가 아니면서 나쁜 수감되었다.



하루 밤이 되자 모든 것은 어둠이 되었다.



앞으로 전향할 것 같았다.

그 이후로 일이 있는 것을 못했다.



저는 용서가 없다. 거의 매일.



정신과 집안으로 가고



일을 했다.



우리는 좋아해서 지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여러 '나'를. 우리들.



내가 지하철에서 배웠다.



다른 그기 마려 지하철을 타고갔다.

공공에서 통행권 하나 마구 썼고



책은 신라까지 읽었지만.



나도 시라까지 읽었다.

이것은 노랑이다
이것은 조롱이다



1. 대학시절

조롱이라는 잡지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 언저리를 맴도는 자들을 조롱하는 잡지라고요? 그러나 제가 읽기에는 그들을 이해하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만화 같았습니다.

제가 대학은 장소로서가 아니라 시기로서 기억됩니다. 막연히 예감하던 알고리즘의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시기, 집이 아닌 룸에서 자취를 개시하는 시기,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아를 골라내(는 것을 요구받)는 시기. 무한한 자유를 얻은 전사처럼 굴지만, 고작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나 정신병동에서 〈감시와 처벌〉을 읽는 것을 '무슨 대단한 저항'이나 되는 것처럼 부듯해하던 시기. 아직 자아는 아예 바치려 연약하고, 그래서 바퀴벌레의 죽은 살점에서 다시 새 팔들이 돌아오듯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생성하고 단단해졌다 자해하는, 자아의 변화를 감각할 수 있는 시기. 만화가 전해주는 그 시기의 공기가 완전히 저를 과거 쪽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저는 한동안 제 대학시절의 망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가 그 시기에서 졸업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내 사회인(?)으로서의 형상에 입학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집착하던 그 시기에 나오며 선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인적인 이유, 비정형의 찰흙용치같이 덜 된 얼굴을 하고 다니던 시절, 그 외에 모든 영역에서 아직 뭐라고 묘사하기조차 힘든 가능성의 세계에 있던 나의 대학시절. 혹시 그 시절에 지금의 나보다 더 사랑스러운 내가, 더 납득할만한 내가 존재했던 건 아닐까 하고 계속 넘겨주듯 굵은 등으로 그 시기를 뒤적이게 됩니다.

그 뒤로 만화에 대해 좀 더 생각했습니다. 만화는 방에서 바퀴를 잡는 것으로 시작해서, 섬에 온 여행객이 되어 다른 여행객과 조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누군가는 진실을 듣겠다고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듣고, 누군가는 어떤 의도도 없이 진실을 말합니다. 남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거나, 속이려는 의도 없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마지막 장면이 제게는 통상의 청춘물이 전하는 막연한 파티팅이나 나르시즘적인 슬픔과는 다른 기분을 전해주었습니다. 바퀴와 팔과 나로서 살았던 시절은 드러나지 않는 도도한 섬물처럼 지금 섬을 여행하는 자의 지하를 흐르고 있다는 기분. 사실은 모두 그렇게 속에서만 맴도는 시기를 간직한 채로 걷고 있으며, 서로 만나고 대화하면서 우리는 그 일부를 잠시 산책시킬 수 있다는 기분. 과거를 회고하는 자의 윤리란 가능한 한 그 시기를 지금을 정당화-미화든 비하든-하는 수단으로 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마지막이 좋았습니다.

2. 만화에 대한 내 인상- 패배, 자아 vs 자아, 반자아, 세계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만화광이었고 지금도 만화라는 형식을 사랑합니다. 언젠가 저는 〈대지의 왕〉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만화 매체에 대해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만화란 어쩌면 한 자아에 패배한 매체가 아닐까 하는. 예를 들어 어떤 매체들은 텍스트 바깥에 선존재하는 대상들-영화라면 배우, 세트, 음향 등. 사진이라면 피사체-을 텍스트에 포함함으로써만 성립할 수 있음이 비교적 선명해보입니다. 그에 비하면 만화매체는 만화가 자신의 선, 구도, 대사만으로 그 물적 형태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바퀴와 팔과 나〉를 읽으며 저는 이전의 속단을 철회했습니다. 선이 하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그 대상을 다시 서사로 읽기 위해서는 결국 만화 바깥에 있는 대상들의 물성, 그 물성이 우리의 시각에 주는 파장들을 끌어들이야 하더군요. 이것은 〈공치〉 모임을 하다가 별안간 송지은의 얼굴을 모델로 그림책의 한 인물을 묘사하려는 간율의 시선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완전히 매혹됐습니다. 그 순간 대기를 가르듯, 단도직입적으로 대상에게 내리꽂히는 그 관찰하는 시선에. 그 순간부터 간율은 제게 있어서는 살아 움직이는 방식으로 체감한 최초의 만화가가 될 겁니다. 영광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그리고 바퀴와 팔과 나에 대해서. 그들의 동침과 폭행을 보면서. 한 인격 안에는 그에 잠재하거나 그로부터 발현되는 여러 개의 인격이 병존하며, 이들이 서로를 해치는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처럼 간명하고 납득가능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였군요. * * 바퀴가 팔이 나인 것처럼, 가장 고귀한 이미지들은 이미 온 세상의 오물을 포함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자아, 심지어 그 자아의 남부끄럽지 않을 법한 부분만을 사용하여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이 생각이 제게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3. 만화가

오늘 저녁 저는 거트루드 스타인이 된 듯한 기분으로 자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혹은 고미술수집가라도 된 양. 저는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는 일만으로 남은 평생을 채우고 싶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들만을 골라내어, 온 집안을 바닥부터 천정까지 유화나 잡문들 따위로 가득 메우고,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가고 싶지 않은 채로, 깜짝 놀라 벌어진 입모양을 한 채 늙어가고 싶다는.

장래희망 운운은 각설하고. 좋은 만화를 읽은 값으로 제가 치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고, 둘은 비평을 쓰는 것입니다. 후자는 간율에게 이 글을 전송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전자 또한 가까운 미래에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만화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특집) 학생이라는 정체성에 대하여

소비자- 학생의 인생수업

왜가리

1 학생이야 직장인이야

학생? 학생이야 직장인이야? 이 말을 던진 사람은 할머니다. 땀뻑한 정장을 다려 입은 사람들이 목에 걸린 사원증을 수습하는 강남역 지하철의 오후, 대뜸 남의 신상정보를 묻는 무례함은 드러난 발신자의 백발 섞인 붉은 머리만큼이나 이례적이었다. 냉큼 고개를 돌린 것은 그래서였을까. 뒤돌아선 자리에서 할머니를 발견하는 동안에도 내 앞으로 서너 명이 각자 바쁨을 과시하듯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갔다. 그만큼 우리 사이의 거리는 멀었고 할머니의 키는 나보다도 머리 하나 정도 작아 똑바로 눈을 마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왜 하필 할머니는 나를 지목했을까. 아니, 나는 왜 인파 가운데에 떨어진 말을 재빨리 나를 겨냥한 걸로 알고 주위들었어야 했나.

내가 정말 좋은 게 있어서 소개해주려고 그러는 데……. 뒤이은 말을 앓다문 입가로 쫓아내며 가던 길을 재촉했다. 연보라색 반바지 밑으로 눈에 들어오는 알록달록한 캔버스 화가 문득 현란해 보였다. 발등에 모래를 끼었듯 내딛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일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당시 나는 일주일 전 등록했던 대형외국어학원의 수강료를 환불받기로 결정. 환불내역이 찍힌 신용카드 영수증과 스터디 회비였던 현금 만 육천 원을 마치 돌려받은 청춘의 일부인양 꼭 쥐고 어떻게 이 돈으로 마음의 허기를 달래볼 수 없을지 몇 개의 선택지를 물색하던 중이었다. 결국은 간식당에서 떡볶이 1인분을 사먹고 남은 배를 앓고 찝찝한 국산과자로 채우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지만, 길가 쓰레기통이 나오고 그 안에 다 먹은 과자봉지를 딱지 접어 버릴 때까지 많은 생각을 했다. 예컨대 예전에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길을 걸으면 학생이냐며 발을 볼드는 사람이 많아 자신이 동안인가 여겼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백수'의 완곡한 표현임을 깨닫고 말았다는 어느 80년대 생의 이야기. 평일 낮에 평상복으로 거리를 거닐 수 있는 자는 학생과 백수뿐이라는 소리다.

2 학생에게 할인을

요즘 대학생이 어디 노냐는 말을 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시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대부분의 대학생은 자의로 시간표를 짜며 마음이 내키면 하루쯤 과감히 수업을 빼고 거리에 나와 볼 수도 있다. 거기에 인생수업이란 거창한 명목을 붙이는 이야점차 줄어드는 추세겠지만, 생각과 다른 대학수업이나 기대보다 엄청난 과제 양, 불안한 미래와 빈곤한 현재 등으로 기우뚱해진 감정과 정신을 수습하는 수단으로서 무단탈모는 여전히 20대 초반에 권장할 만 한 자가 치유 수단이다. (대)학생이 누리는 평일 낮의 특권은 종종 한없이 백수에 가

까운 영역으로 치부되는 문화예술계에서의 특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평일 낮 영화관에 들어찬 젊은 이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라. 시간이 아니면 돈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버스 탑승 시 카드를 갖다 대며 '학생' 소리를 듣는 거야 십대 때로 족했겠지만 문화예술 바닥에 발을 들이면 상당수의 연극, 공연, 전시에서 학생 명목으로 최대 50%에 달하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요즘은 장기 졸업 유예생과 졸업 후에도 학생 행세를 하는 '스마트 컨슈머'들이 많아 할인 적용 나이를 명시하는 경우도 늘어나기는 했다.)

학생할인의 역사는 유구하고 그 이유와 연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버스와 같은 준공공재 이용 요금 할인에는 우선 사회 전체의 안정적인 생산성을 위해 미래의 주요 인력이 될 트레이닝 과정의 (거의) 소득이 없는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목적이 있다. 이런 공익적 성격은 공공영역 이외에도 많은 학생할인 제공자들이 표방하는 바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및 기타 유사 산업계에서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진다. 학생이라 불리는 십대에서 이십대 초반 청소년의 경우 개방적인 성향이 강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가지게 될 확률이 다른 세대보다 조금 더 높다(고 여겨진다). 어릴 적부터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습관을 들여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나날 동안 꾸준히 후원자가 되어 줄 장기 관객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앞서 말했듯 학생은 시간 활용의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덜 가는 시기에 도 시간을 들여 극장, 공연장, 전시관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이상의 분석은 '학생'이란 계층의 특수성에 지나치게 가치를 부여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에 부딪힐지도 모른다.

어쩌면 학생은 그저 생산 활동을 주 업무로 하지 않으니 기대 처분 가능 금액이 낮아 기존의 가격으로는 유인하기 힘든 (따라서 값을 깎아 구매를 유도해야만 하는) '저소득층'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왕 물건을 팔겠다면 충분한 지불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비싼 값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싼 값

을 불러 최대한의 판매고와 이득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장사치의 마인드 아니겠는가. 각 대학 앞의 카페와 음식점들은 일제히 인근 대학 학생에게 할인을 해주며 그들의 자유 시간을 붙들며 각 대학가를 번화가로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저소득층'을 규정해 그들에게 값을 깎아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계(한국에서는 정부가 세금으로 개입해 일정비용을 부담하는 의료보험만이 유일하게 용납되는 형태다.)에서 학생할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는 분명 특이한 구석이 있다. 이 특이한 구석에 대해서는 아래서 더 해둘 말이 있을 것 같다.

3 대학 문 앞에 놓인 사회의 맛

교육부는 지난 9월 9일 '2014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하며 25세에서 34세까지 한국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66%, 고교 이수율은 98%라고 밝혔다. 대학 이수율 대신 진학률을 적용하면 수치는 좀 더 올라간다. 몇 년째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높은 '향학열'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이야 수많은 매체에서 다뤄 누구나 한 두 가지쯤은 물어볼 수 있는 주제이니 여기서 길게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나는 이 놀라운 보편성이 학생을 향한 한국사회의 시선을 형성하는 데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기에, 굳이 검색을 하여 이 익숙한 통계치를 옮겨 적고 있다. 결국 우리 세대가 상상하는 통상적인 '우리' 안에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학생이었다. 이것이 학생 아닌 자들이 학생을 논할 때 없곤 하는 회고적 논조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할인을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는 것으로 여기게끔 하는 착각을 빚어내곤 한다.

이십대 초입의 대학생들 상당수는 스스로의 신분을 칭하며 겸연쩍은 표정으로 슬그머니 앞 글자를 빼고 있다. 이것은 대학생이 자신의 삶을 이제까지

겪었던 생활로부터의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 간주하고자 한다는 하나의 징표다. 교복을 벗고 성년이 되지만 그보다 무거운 학생이란 이름표를 뗄 수 없어 몇 년의 시간을 더 담보로 내어주고 미래를 도모한다. 엘리트로서의 대학생,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나서며 사회적 의식을 체감했던 '특권층'은 사라진 지 오래다. 동시대의 학생들에게 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유예의 시기를 겪는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회의 맛을 가장 먼저 체감토록 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소비 경험이다. 수능 수험표를 손에 쥔 채 옷, 화장품, 기타 물품을 사며 깔끔한 양산형 인테리어의 부분 조명 밑에서 기름진 이국의 요리를 먹어본 경험쯤은 무척 흔치 않은가. 최근에는 여기에 피트니스 센터까지 가세해 보다 아름답고 탄탄한 몸으로 청춘을 만끽하라는 홍보를 내거는 모양이다. 아주 많은 상품의 판매자들이 수험생의 노고를 치하하며 결과에 관계없이 기꺼이 당신을 나의 고객으로 맞아들이겠노라 손짓을 한다. 대학생은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산업예비군' 이면서도 잉여인간이나 낙오자가 아니며, 소비의 측면에서는 그 어느 계층보다 자주 타깃이 되는 연령대를 지나고 있다.

윗세대는 앞 다투어 대학생의 과소비 풍조를 비난하곤 한다. 의무보다 권리만을 내세우고 자신의 분수를 몰라 터무니없이 비싼 상품에 눈독을 들인다고 꾸짖는다. 그런 말에는 으레 고생하던 예전을 향한 노스탤지어가 단골 레퍼토리처럼 곁들여진다. 그러나 실은 소비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인생수업'이다. 떡을 내민 다음에 더 먹고 싶으면 값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이 홍보의 기본이듯이, 내수 소비로 지탱되는 사회에 대학생들을 공모자로 끌어들이는 것은 평생 소비 수준의 지표를 설정해 앞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라고 권유하는 강력한 압시가 되기 때문이다. 매일 마시는 커피 값을 아껴 모인 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일깨우는 경제지의 기사들은 그런 점에서 병 주고 약 주기를 시연하는 셈이다. '매일 마시는 카페라떼 한 잔 값'을 단순한 수

사가 아닌 실제적인 지출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될까. 사천 원짜리 커피를 매일 사는 사람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사지 않는 사람도 드물다. 생각해 보면 내가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이, 어디 단지 커피 한 잔일 뿐이던가? 커피는 지친 몸을 새벽까지 깨어 놓는 간수이며 아침잠을 쫓아내는 매니저다. 얼떨떨한 자리에서 물탄 듯 분위기를 맞추는 친구이자 작업 공간 임대를 위한 사은품이다. 이 시대 소비의 아이콘인 '커피 전문점 커피'는 그 명성이 아깝지 않을 만큼 미성숙한 '사회인'들의 생활 구석구석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4 학생과 사회인이라는 구분법

나는 안산에서 태어나 내내 수도권을 맴돌며 살았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학생이 되어 준(俊)서울시민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생활의 지평이 크게 바뀌는 경험을 했다. 봄비는 신촌 한복판을 매일 통학 길로 오갔다. 치킨 집과 고기 집, 일본풍 이자카야를 표방한 채인점만이 넘치는 빈곤한 식문화에 질려 떠오르는 서울 구석구석의 '힙한' 풍광을 찾아다니느라 길바닥에 쏟아낸 시간이 또한 어마어마했다.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다는 것을 공간의 변화로 치환해 느낀 세월이 늘어갈 때쯤 불현듯 학생과 사회인이라는 구분법이 타이머 달린 시계처럼 짹짹 울리며 둘 중 내 위치가 어딘지를 거듭 질문하게 했다. 비록 나는 늦깎이였지만, 빠르면 신입생의 매무새를 벗어날 무렵부터 우리는 이 사이를 진동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는 학생, 어느 정도는 사회인으로 살면서 내가 보는 나와 나의 상품가치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바람직한 자아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었다.

'학생'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무수한 가윗일들은 언제나 기존 인식에 물들지 않은 학생만의 날다 큰 시선을 요구했지만, 경험의 가짓수를 늘려갈수록 그런 게 어디 있나 싶은 의문만이 비뚤하게 메아리쳤

다. 자신을 학생다움, 또는 청춘다움으로 포장해 내밀 만큼 거죽이 두꺼운 이는 극히 드물었다. 그 주변을 맴도는 낮익은 치기와 과장된 발랄함 혹은 호들갑에 질려 그만 학생 무리에서 벗어나고 싶다 생각해 보는 것도 짐작컨대 꽤 흔한 패턴이리라. 그러나 대학 졸업 전의 우리가 학생이라는 정체성에 기대지 않고 이 사회에서 어떤 집단적 정체성 안에 자리 매김하기란 익숙지 않은 일이다. 나는 대학에 발을 들인 후 육년 간 학생이었다. 각종 설문지에 답하고 여러 시험에 응시하며 직업란마다 학생이라 답했다. 어떤 모임이라도 나가면 초면의 또래들끼리는 서로 학생이신지 묻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세계 속에서 나의 어중간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모자람 없는 시민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학생이란 신분 증명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학생이라는 신분은 어디까지나 예비 사회인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고도성장의 소용돌이 안에서 공부를 숭상하는 민족으로 양육된 평균의 한국인은 본분에 충실한 학생이 후일 온전한 '사회인'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요즘 기준에서 온전한 사회인의 첫 문턱이라면 정규직 일자리일 것이다. 학생과 사회인 사이에 충분히 크고 튼튼한 무지개다리가 놓여있다고 믿는 이들일수록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향하는 사이의 길이 막혀 버린 문제에는 무관심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노력 여하 혹은 능력에 따른 당연한 차등 대우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연속적인 삶의 단계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학생과 사회인의 구분이라기보다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전 십 년대 대학에 들어온 이들이라면 '본분에 충실'한 것보다는 부지런히 탄올을 파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점을 어렵잖이나마 눈치 챘을 것이다. 전공과 직무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좋은 학점이 반드시 그 사람의 수학능력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이런 괴리 속에서 기업은 대학이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다며 큰소리치고 신입사원 교육을 대학에 아웃소싱하려 든다. 비정규직에게 업무를 가르치기보다는 정

규직 전환시점 전에 해고하려 들고 처음부터 가려 뽑은 정규직 신입사원들만을 '키워' 주겠다고 그 안에 들겠다는 경쟁물만 갈데없이 치솟는 추세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비용은 줄어듦과 대학교육은 남작하게 압축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형태라는 데, 과연 학생을 사회인의 전 단계로서만 대접해주는 사회에서 통용될 만한 주장이다. 학생에서 사회인이 되는 것이 삶의 국면이 바뀌는 비약이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연속된 것으로 채워지는 날이 정말 오는가. 그 트랙에 들어가지 않는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은 이제 학생으로서도 부적격이 되는가.

학문과 관련 없는 방향으로 비대하게 부푼 한국의 '학생' 정체성에 숨이 막혀오던 중, 학생살인의 자리를 없애고 이를 비정규직(과 활동가) 할인으로 대체한 한 연극 공연의 대표 정책이 몹시 신선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난다. 플트플렉 해고 노동자들과 재개발로 밀려난 카페 '그' 임차인들이 직접 출연, 카프카의 소설 「법 앞에서」에 자신들의 현실을 빚댄 논픽션 연극이었다. 이 사회에서 여웃돈을 벌지 못하는 자,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면 지원이 필요한 자, 정치적 견해를 펴드리기 위해 연대해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볼 때 관성화된 '학생'의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는 것은 눈에 반박 되는 시도였다. 물론 할인 대상에 '학생'을 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대학 재학 중인 사람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는 자신을 이따금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비정규 노동자로 정체화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름표 바뀌달기가 우리, 불안정노동현장에 나와 있거나 곧 나가게 될 이십대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관점 전환의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학생을 산업현장(어쩌면 이제 '사회' 전체를 대신하는 이름)의 외부자 혹은 준비자로만 보려는 '대한민국 표준인생트랙'의 설계자들을 경계하라. 그것은 유력한 정치집단으로 행세했던 학생의 자리가 붕괴된 이후, 학생이 나름의 이해관계를 가진 독자적 정치 행위자로서 무대에 오르는 것을 저지하려는

시도와 궤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견해를 공통의 화제로 입에 올리는 것이 저어되는 사회에서는 흔히 소비와 취향으로 자신의 자리를 증명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이 기승을 부린다. 앞서 적었듯, 지금껏 한국사회에서 대학생은 소비주체로서 크게 부각되어온 계층이었다. 그러나 대학생이 사회 안에서 소비행위로써 가시화되고 미디어의 주목을 받아온 시기도 이제 술술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광고가 주 수익원인 TV드라마에 대학생 주인공의 명맥이 끊겼음을 상기하라.) 대학가를 포함한 서울시내 변화의 주된 손님은 어느새 중국인 관광객으로 대체되는 중이다. 신촌 한가운데 우뚝 솟은 현대백화점에 대문밖만한 크기로 세일을 알리는 중국어 걸개가 붙고 몇몇 가게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어떤 공익적 명목의 껍질도 없다.

앞으로 삶의 반경이 점차 쪼그라들어가는 학생들을 주소비자로 대우해줄 산업 종목은 각종 영어시험은 물론이요 공무원시험과 대기업 입사시험까지 아우르며 다변화해가는 포스트입시 사교육 시장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겠다. 처음 수강을 결심하고 학원 안에 발을 드밀었을 때 느꼈던 가벼운 포근함이 떠오른다. 각종 입사지원서와 씨름하며 스스로의 부적격성만을 실감해야 했던 나에게도 딱 맞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는 안도감. 멘토들의 후광이 바래가는 와중에도 이들의 '속물적인' 처방은 아픈 곳을 딱 찔러주는 정확함으로 좁고 조용하게 절박한 이들의 주머니를 열여갈 것이다. 사회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불안을 다독이며 주어진 시간 안에 필요한 결과를 딱 뽑아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광고들이 학생 정체성의 종착지가 되는 미래에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라도, 취업준비생이라는 자아상에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을 파묻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특집) 학생이라는 정체성에 대하여

나와 하다와 코뚜레

간을

어떤 이야기를 쓰든지 간에 나는 오랫동안 죽기만을 염원해왔다는 말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죽고 싶은 기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엄청나게 나쁘지도, 그러나 즐겁지도, 유쾌하지도 않다. 정확히 말하자면 유익하지 않았다는 편이 옳다.

작은 인간관계, 작은 사회 안에서 죽고 싶은 기분과 익명의 도시 사회 안에서 죽고 싶은 기분은 사뭇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작디작은 공주의 여자 중학교 옥상에서도 친구를 앞에 두고 어제 모은 피가 담긴 병을 깨면서 오래 기억에 새겨지지 않을 말을 뱉어냈다. 혼란과 혼란들. 하지만 그 혼란들은 다 같이 나란히 자라난 가을 들목의 여뀌처럼, 비스무리한 색과 크기의 알갱이들이었기 때문에 나의 비정상은 일종의 정상적인 돌연변이처럼 받아들여졌다. 아주 자연스러운 돌연변이. 크로버들 사이의 네 잎 클로버처럼. 오랫동안 같은 풍광을 한 단조로운 고장에서 자라난 존재.

서울로의 상경은 대단치 않은 것처럼 굴었지만 대단한 일이었다. 나는 켄 채를 좀 하고 싶어서 본디 평화로웠던 집과 불화를 일으키고, 저 혼자 집을 구하는 시늉을 하고, 돈을 많이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내가 살게 된 곳은 호화로운 하숙집이었고, 그 집에서 나는 아주머니 나이대의 할머니가 차려주는 꽃계 찌개나 조기 찜 등을 반찬으로 대낮에 하는 CSI나 성범죄전담반을 시청하며 밥을 먹었고, 심 여분 거리를 걸거나 자전거를 탄 채로 학교에 갔다.

나의 학과는 답사 때 먼 수 백 미터 산길에 올라 고려 왕릉 앞에서 드러누운 채로 더 늦게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단체 사진을 찍을 적마다 거리낌 없이 잔디밭에 드러누웠다가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기를 예사로 하는 소박한 사람들이 많았다. 대학 캠퍼스의 일렬로 곧게 가로지른 보도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신체를 한 채로 지나갔지만 우리과는, 우리 대학은 유난히도 어수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어수룩함은 다른 수더분함 사이에 섞여서 한 덩어리가 되었다. "문과대 사람들을 알아보는 요령이 있어." "아무리 다른 옷차림을 꾸미더라도 신발에서 티가 나." 친구 A는 어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눈을 내리깐 채로 조곤 조곤 이야기 해주었다. 추리소설의 팁이라도 알려주는 것처럼,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강한 눈빛을 따라 나는 그의 아름다운 힘과, 내 오랫동안 신었던 허름한 신의 대비가 무지 강렬해서, 도망치듯, 아무리 겹옷이 새 옷이라도 머쓱해진 나머지 거칠게 주제를 돌렸다. "그런 것 같아. 우리 술 먹을까?" 이후에 나는 오래도록 문대 앞을 서성이며 사람들의 신발을 관찰하곤 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2학년인지 3학년의 어느 해엔 주구장창 검은색 흰색이 교차하는 삼현 원짜리 슬리퍼만을 신고 다녔던 터라 할 말은 없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마치 멸종이 되듯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나는 대학 시절에 담배를 배웠다. 아니 담배를 시작했다. 아니 담배를 찾게 되었다. 하지만 손놀림은 익숙해지지 못해 초창기에는 검지로 불씨를 날려 끄지 못하고 신발 바닥에 비비며 앞서가던 비흡연자의 걸음을 따

라잡곤 했다. 고무창 슬리퍼 밑으로 불 지진 흔적이 많은, 어수룩한 낮빛의 문과대, 사학과 학생이라.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학교를 맨 낮으로 걸어 다녔던가 실을 정도로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단순히 대학생이 되었고, 서울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시골 사람에서 도시인으로, 전근대인에서 근대인으로, 오감을 사용하던 생활에서 시각의 세계로, 신체의 세계에서 정신작용의 세계로 이주하는 과정에 있었다. 매일이 그 적응의 일부였고, 그리고 우연(돈이라든지)과 우연(돈이라든지)을 거듭해 다소 불시착이긴 하나 꽤 구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도시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빠른 시간. 너무나도 많은 교통. 너무나도 좁은 곳을 아주 그냥 복잡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아 서울은 너무너무 넓은 곳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하루에 멀리까지 버스 한 노선을 타고 나가는 거리가 우리 고장 시내버스 끝에서 끝까지 가는 거리보다 짧고, 소요 시간이 그 시내버스 한 타임과 다음 차 시간 사이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몰랐고, 그러니 서울서의 '일반적인' 시간이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 내 고장에 하루 시간 일부랑 기껏 다른 게 없다고 생각 못하고, 고장에선 하루 종일 할 일을 이곳에서는 기를 써서 한 시간 이내에 하는 급변한, 찌그러진 시간감각이 내가 망가지는데 박차를 가하게 했다.

그렇다. 대학 시절, 나의 갈등들은 그것들과 마주친 순간에 폭발하지 않았다. 갈등이라고 알아챌 수 없었으니. 충돌은 서로 부딪히고 있음을 인지해야 발생하는 것. 나는 한마디로 이해력이 달렸기 때문에 무엇이든 무엇인지 구별을 못했다. 나는 온순하게, 문과대, 사학과, 기타 등등으로, 자신을 설명해왔다. 설명해왔지만, 그 안에서 여러 삶을 살면서, 각각의 세계마다 다른 관계들을 만들어낸 그게 과연 나였을까? 나는 어떤 학생이 아니었다. 나는 다른 시간감, 다른 공간 안에서 변화하는 과정의 하루하루였고, 때문에 말쑥 없이 배회하는 인간. 돌아갈 곳을 구하며 서성이는 인간이었음에, 그러나 이 어정거림을 소화하지 못했다. 불화와 갈등들은 서울

학생 연대 등의 이름을 갖고 차곡차곡 엮혔고, 나는 그 안에 섞여있다는 듯, 제 보호색인 양 우두커니 서 있었지만 일관된 행동이라곤 오직 그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말 많은 정도였다.

하다를 만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아니, 공방에 나가서 일을 하며 보였던 인쇄심이고, 성실하고, 과묵하고, 얘기를 삼가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나는 이례적인 나다. 술 안먹고, 담배 안 피우고, 말 안하고, 미친 기색 안 드러내는, 그 무렵은 졸업 앞둔, 졸업을 결심한 이례적인 학기였기도 했다. 목공방에서 새 목공품 동료들과 들보 작품을 만들고 있었을 때, 한 구석에서 테이블 위의 상판들에 스테인¹을 칠하고 바니시²를 칠하고 공업용 드라이기로 말리던 사람이 하다였다. 우리는 일주에 한 번씩 왔는데 그는 처음엔 머리가 주황이었다가, 나중엔 노랑이 더해졌다가. 그 다음엔 완전한 보라가 되고 그랬다. 우리는 말 없이 보냈다. 다만, 어느 때부터는 빨강이 머리가 되어갔고, 그의 머리칼이 한 가닥에 수많은 색의 스펙트럼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공방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손수 머리를 염색한다는 사실도 익혔고, 간단한 가위질부터, 복잡한 호일염까지 스스로 한다고 해서 놀라웠다. 그렇지만 그의 머리칼은 오른쪽에서 왼쪽이 서로 달랐고, 색도 달랐고, 그 해 겨울, 테이블 조립 날이었다. 투바이³에 75mm 피스를 처음 박던 날, 어지간한 악력으로는 어려워 어깨를 밀며 전동드라이버를 박아 밀어 넣을 때 눈가에서 열병대는 열머리를 왼 손으로 한데 모아 뒤로 넘기며, 한 손으로 어깨를 사용하여 드라이버를 박을 때 색깔이 강렬했다. 끝나고, "한술, 잠만요, 이거 묶고," 하고, 뒤로 묶었을 때, 아무데나 처박아두어 휘고 붓털이 삐죽 튀어나온 붓을 억지로 모아 물감에 적신 듯 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길 없었고, 알고픈 마음이 들 여력도 없었다. 단지 우리는 시작부터 가만히 적응하는 걸로 스타트를 끊은 것이다.

가끔 공방장까지 더한 우리 셋의 대화는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인생의 연구주제가 뭐야?"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혹은 지나치게 물질적인 이야기였다. "피스⁴ 32, 38, 50, 65 두봉다리씩, 마대자루 20개랑, 타카⁵심 F30, 40, 그리고 톱 대가 새로 있으면 좋겠고," "팔라줘요. (연필로 표시한 곳만큼 잘라주세요, 이쪽 방향으로,)" 그러나 그 사이에서 서로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짐작이든, 관찰이든, 대기한 것이든 하여간에 옆에서 웅시로 채웠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한 것은 대부분 공방어로, 영어와 일어 단어와 현장어와 아저씨 말들이 미묘하게 섞이고, 간데없는 사투리도 섞이고, 사실 언어나 말이 아니라 행위를 지칭하려고 골라온 말들로 짜깁기 되어있었다. 우리 가운데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 하나만 골라 서로 어떤 작업을 할지 일치시키면, 우리의 나머지 일들은 다음 넘어갈 그림책 장을 예상하는 것만지로 쉬었다. 이를테면 기리⁶엔 여러 동사가 갖다 붙는데, 기리를 쓴다, 낸다, 준다, 간다, 한다 등등 어떠한 동사로 행동을 나타내든, "한술 기리 하고 (조립)해요." 라고 말한다면 이후부터 우리의 머릿속에는 기리가 지나가는 90° 구멍을 낸다는 것을 공유하고, 전동공구 십자드라이버에 머리를 맞추고 몸을 장전한 후 기리가 구멍을 꼭 맞게 내고 나오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다양한 작업 용어들이 하나의 행위로 수렴되는 것이다. 많은, 어려운 수사도 필요 없었다.

하다는 한 번 기리를 쓰다가 부러뜨린 적이 있다. 박을 때 힘주던 방향이라서 뺨겨나가며 그의 엄지손가락을 찔렀고, 피가 솟았는데, 몇 시간이고 멈추지 않았다. 병원에 가요, 파상풍 주사를 맞아요, 파상풍 주사는 5년동안 효과가 있다고, 나도 파상풍 주사를 전에 맞은 적이 있노라 신신당부를 했지만 하다는 병원을 잊었다. 그는 병원을 싫어한다. 병원이 주는 강압적인 태도부터, 피부에 닿는 날붙이까지 전부 진짜 정말 싫어한다. 싫으니가 병원에 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기리가 난 길은 아물었지만 그 주위론 감각이 없다 한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한명, 코뚜레, 사실 코뚜레는 별칭이다. 발간을 앞두고 코뚜레에게 직접 나 하다랑 코뚜레 나오는 소설 써도 돼요? 하고 물었을 때 코뚜레의 표정은, "예?" "왜?" "또?" (이 새끼가 또 무슨 지랄을)" 한 손에 보행 시가 맨솔 아이스를 들고, 한 손에는 사슴이 그려진 지포를 들고, 검게 달라붙은 바지를 입고, 작업화 모양의 닥터마틴을 신고, 보이는 곳마다 문신을 하고 코에는 코뚜레를 한 채, "근데 왜 또 내 이름만 코뚜레야," 하고 무뎠대는 그에게 "코뚜레가 코뚜레지 뭐," 하고 사슴 지포라이터를 빼앗아 모가지가 넘어가게 열어 불을 붙였다.

¹ 오일 스테인 oil stain

착색제의 하나로 실내 목재 도포용의 도장착색제이다. 공방에서는 주로 유성을 사용하고, 착색 염료에 따라 색을 달리할 수 있으며, 특히 나무 문양을 살리면서 착색할 수 있다. 보통 스테인을 발라 색을 내고 바니시로 최종 코팅한다.

² 바니시 varnish

도막형성(코팅)을 위해 사용하는 도료이다. 종류가 여럿 있는데, 공방에서 사용하는 수성 바니시는 백색 수지(樹脂)로 바르면 투명해지며 방수, 방염 처리된다.

³ 투바이 two by (four)

제재목을 지칭하는 단어로 2inch x 4inch 자재를 의미한다.

⁴ 피스 vis

붙어로 작은 나사못을 일컫는다. 현장에서 비스 비스 하다가 피스로 정착되었다. 지금은 피스 하면 나사못으로 다 알아 듣는다

⁵ 타카 tacker

금속 핀을 공기압 등으로 박는 공구로, 압정을 박는 사람/시침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tacker에서 도구이름으로 정착되어 널리 퍼졌다. 타카심은 타카에 장착하는 금속 핀을 말한다. 작업에 따라 F, ST, J, M, DT 등 다양하게 분류된다.

⁶ 기리 (きり)

송곳을 의미하는 일어로, 'drill 날'을 가리킨다.

그렇다 왜 코뚜레냐면, 그게 단순히 네가 코에 고리를 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코뚜레와의 작업은, 신관 4층 옥상에서 줄 작업⁷ 할 때 시작했다. 왜 우리가 라텍스 장갑을 벗어던지고 작업에 나섰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도중부터 라텍스 장갑일랑은 벗어던지고, 맨손으로 바르기 시작했다. 틈새로 갈라진 타일에 손이 베었고 그 사이로 시멘트가 스며들었다. 그 날은 무지하게 일을 많이 하고, 무지하게 술을 마신 날이었고, 왜 그렇게 지리하게 일을 많이 해야 했냐면, 사실 모르겠다. 아무튼 간에 세 시간에 걸친 대대적 줄 작업은 남의 공장 사람 손에 생채기를 내가며 끝마쳤다. 오른손에는 수상할 정도의 상처가 패여, 코뚜레가 어이없단 표정으로지만 웃으며 젖은 대일밴드를 붙여주었다. 우습게도, 손금처럼 깊게 베었기 때문에 사실 그 위치에는 뭘 붙이든 금세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가 내 손에 물입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담배에 서로 불을 붙여주었다. 대학 시절, 선배가 담배를 피우는 까닭은 처음에 피웠던 맛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라는 식의 낮간지러운 발언을 했다. 나는 첫 자리에서부터 오래된 골초인양 자연스럽게 물들었기 때문에, '첫' 이랄 것도 없었다. 하지만, 영등포 오거리에서 서성이면서, 나는 그의 담배를 뺏어 피우다 다시 물려주었다. 코뚜레가 축축했다. 그는 그 주 주말을 쉬고, 월요일에 인도로 떠났다. 그리고 한 참이 지나, 코뚜레를 하고 돌아왔다. 그제서야 그가 달리 보였다. 한 명의 작업자로, 하나의 시간을 쪼개는 사람으로.

코뚜레는 흙 작업을 한다. 그의 손에서는 언제나 점토의 온도가 느껴진다. 아, 그렇지만 점토는, 공방의 점토는 시각적이지 않다. 상기의 문장에서 흙의 냉기가 느껴지지는 않을 거야. 다만 코뚜레는, 그의 언제나 마른 손은 청토, 백토, 옹기토, 물 잔에 손을 담가서 흙을 휘감아 올리는 그의 물레질의 끝에는 언제나 점토의 서늘한 온도가 머무른다. 재벌을 마친 그의 그릇들에도 같은 온도가 머문다. 플라스틱처럼 본질적으로 무감각해서 따뜻한 것들과는 다

르다. 사실 살아있는 것이 냉정하려면 마음 쓰고 있다는 뜻과 상동하다.

나는 학생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 학기 한 학기 거듭할수록 저절로 되는 듯 했지만, 결국 내가 학생이 된 게 아니라 학생에 내가 포함된 것이었지. 그러나 충분히 서울, 대학생 기분을 내기에는 가뜩이나 도둑이었다. 나는 H센터와 그 언저리에서 일했지만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결국 내가 돌아갈 신분이라는 안온함이 있어 가능했다. 나는 학생 이후의 삶을 걱정하지 않았다. "졸업하고 뭐 할 거야?" 라는 술한 질문에 "우선... 지금 하는 목공일을 하면서 천천히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볼래요." 하는 자못 초월한 모양새의 답변은 모두를 경악케 할 만큼 비현실적이었음에도, 다들 대학생 이후의 신분은 다분히 능동적 선택의 영역이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취향 존중' 받았다. 그리고 환희에 겨워 졸업했지만, 이내 모든 문제의 시작을 직면했다. 취업하지 않은 채로 애매모호를 즐기기에 내가 고유하게 가진 탄성은 부족했고, '백수'의 얼굴을 하기엔 녀석이 나쁘고 여유가 없었다. 그 옛날 내가 었비슷한 여귀들과 다들 바 없었을 때 가졌던 자연스러운 유연함은 '학생 되기'와 바뀌며 이제 더는 없는 게 아닐까? 그러나 목공방에서의 작업은, 흙공방에서의 작업은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나를 따라온 게 아니었다. 내가 시간과 수많은 작업들을 쫓아갔다. 학생 노릇을 하며 갖추었던 많은 것들이 쓸모가 없었기에 멀찍이 내려 둔 채, 공방 작업에 매달렸다. 일하며, 신발은 매일 같은 등산화로 신었는데 마감 작업 할 때마다 앞코에 색색의 스테인들이 어제의 얼룩위에 새롭게 떨어져 번졌다. 온장 합판과 자재들을 쉴 새 없이 지고 나르면 그날 저녁에는 손금이 어제보다 깊게 패었고, 공구가 오래 닿는 위치마다 못이 박히고 가죽이 질겨졌다. 나의 신체는 어릴 때 개를 쫓아다녔을 때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작업의 생동을 따라서 이동했다. 신발을 출발로, 그위의 옷들이 모두 그와 닮게 바뀌

어갔다. 나는 거렁뱅이웃을 다시 즐겨 입게 되었고, 손에 페인트가 묻으면 바지춤에 스스슥 닦았다. 옷들은 가지각색으로 해졌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더 좋은 사람⁸.

하다와 코뚜레를 만나고나서, 나는 '학생'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었다. 이들의 존재는 "하다는 목공방 선배고, 나는 아직 시다예요."라고 설명하거나, 예들러 "목공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화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곳에 학생으로 정착한 게 아니라 '사실'이 있었고, 학생 이외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내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작업을 했고, 같은 작업을 다르게 했고, 내가 잘 하는 부분과 하다가 빛을 발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나누어 가지는 일들이 '(학생) 간율이 목공방에서 놀면서, 쉬면서 있었다'가 아니라 '일을 했다'로 남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출근을 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다와 코뚜레랑 시간을 보낸다. 휴일 실일 때도 있고, 흙공방일 때도 있고, 회의일 때도 있고, 간식시간 혹은 커피 타임일 때도 있다. 작업 환경에서의 루틴에서 우리는 시침과 분침, 초침처럼 시침미를 때고 한 점에서 머무르는 그 시간처럼, 우리 셋은 저마다의 시간대에서 각자 우연히 만났다는 듯이 서로 쳐다본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제각각 작업으로 돌아가고, 해가 지고 아침처럼 추워지면 모두 시마이! 외치고 헤어진다. 매일매일이 퍼펙트 데이가 아니어도 괜찮다. 오늘의 작업을 반드시 끝장보지 않아도, 그래서 오늘의 일이 내일로 천천히 넘어가도 좋은 것이다. 내가 죽기를 열망하는 것은, 끝이 뻗은 이번 판을 (스스로)죽음으로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염원함과 마찬가지로, 나는 줄곧 기대해왔다. 여기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그러나 그런 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매일 끝마칠 때 "시마이!"를 외치고, 만났을 때 "하이"하고 인사한다. 왜냐하면, 내일도 일 할 거니까.

7 줄 작업

흙공방에서 쓰는 작업 용어로 타일을 깨서 모자이크 작업을 하고 나서, 백시멘트로 금을 채워 마무리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⁸ perfect day-lou reed.

"I thought I was someone else, someone good."

사후약방문과 시의 소비자들

왜가리

연세대학교 정문 앞의 횡단보도를 건너 터널을 빠져나오면 악국의 고장이었다. 이 문장은 패러디다. 사실 병원 근처에 악국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중 유독 내 주의를 끌었던 상호가 하나 있다. 신호등을 기다리던 어두운 시간, 횡단보도 앞에 서면 바로 보이는 벽 위 붉은 색의 네 글자 '일심악국'은 무척 도드라졌다. 오래된 탓인지 '심' 밑의 붉은 두껍이 벗겨져 그 밑의 네온등이 드러나 보였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을 수도 있다. 그제 눈에 띄기야 하나까. 예전에는 일부러 간판을 거꾸로 다는 일도 더러 있었으니까. 그러나 대학생이 되어 부라부라 습득한 눈치 덕에 악국에 가서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고, 대신에 시를 하나 썼다.

굳이 '시'라는 형식이 되었던 것은 당시 내가 시 쓰기 수업을 청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2012년이었고, 궁금한 것이 생기면 글로 써서 해결하겠다는 못된 심보를 들인 지는 그보다 조금 더 오래되었다. 아들애 이 시를 다른 몇 편에 묶어 문학상에 내보았으나 낙선했다. 나로서는 첫 투고였다. 그즈음해서 일심악국의 벽 간판이 교체되었다. 연세로가 말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벌어질 준비를 하던 것도 아마 그때였을 것이다. 거무튀튀한 잔상을 남기는 붉은 빛의 네온등 따위 도시기관상 보기 좋지 않겠다는 누군가의 판단이 개입되었을 수도 있겠다 싶다.

어쨌든 주소까지 주석으로 갖다 붙인 내 시는 근거지를 잃었다. 수업시간에 시를 평가하던 시인은 이 악국의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지 않으나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본 악국의 이름이 '일심악국'이 아니었다면 하필 마주선 남녀를 시 안에 들어오는 일은 없었을 거다. (그것은 '사랑시'를 보고 싶다는 강의실 일각의 취향에 대한 응대이기도 했으나) 사실 시가 완성되기 전에 내게 좀 더 익숙했던 이미지는 순교자의 것이다.

올해 사월 '문학과학사(이하 문지사)'¹의 '시걸림'에 시 '일심악국'을 냈다. 시걸림이란 '죽은 시' 69편을 선착순으로 모아 시집으로 발간하겠다는 기획이다. 무당 김금화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만신>에 나오는 '쇠걸림'을 패러디한 것이라고 했다. 신애기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안 쓰는 '죽은 쇠'들을 걷어다 '산 쇠'인 무구(巫具)를 만드는 것처럼, 죽은 시를 모아다 산 시를 만들어주겠다는 뜻이다. <만신>도, 문지사도 흥미롭게 보았던 터라 시걸림 기획에 호감이 갔다. 잘 하면 한 해 몇 천 편의 시들을 떨어뜨리는 주요 신인문학상의 권위를 아무지게 비트는 시도가 될 수도 있을 듯 했다. 무엇보다 나는 시 쓰기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의 시를 읽는 것이 재미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시라고 생각하는지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그리고 권당 8000원 정도인 "시걸림" 시집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시를 하나 제출하는 편이 싸게 먹혔다. (죽은 시 투고자들에게는 한 권씩의 시걸림 시집이 증정된다.)

시를 내기 전에 잠깐 머릿속에 스쳤던 사례는 참가비 없이 단채전을 열어주겠다며 작품들을 받아다 보아도 보이지 않는 위치에 배곡하게 걸여두었던 한 미술전 기획이다. 전 사회가 열린 후 해당 기획자는 자신의 작품을 오브제 취급했다는 참가자들의 항의를 술

하게 받았다. 시걸림에도 그런 위험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다. 막상 두껍이 열리고 받은 것은 그보다 조금 못 미쳤는데, 평론가와 악물러가 두루 즐겨 쓰는 전통적인 방식의 별점 테러였다. 평자는 "별점을 통해 돈을 내고 이 글을 사서 읽는 독자들에게는 이 시가 어느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²고 썼다. 그러나 과연 이런 의도로 써 별점이 제대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별점은 기본적으로 줄 세우기다. 분류보다는 위계를 작동 원리로 하며 그 자체가 포함하는 의미는 지극히 빈약하다. 별 넷짜리 영화가 별 둘짜리 영화보다 두 배 좋은 영화라고는 생각할 수는 없다. 별점이 대중문화계에서 인기를 누려온 것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단 1초 만에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체계이기 때문이었다. 어떤 영화나 음악을 소비할지 결정할 때 한번 쓱 훑어보는 참고 자료로서 쓰인 별점은, 소비의 결과 후 믿을 만한 평론가와 그렇지 않은 평론가를 구분하는 참고 자료로 다시 활용되고, 결과적으로 문화 상품의 기대 가치를 판단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며 문화 소비의 주기를 빠르게 한다. 산업화된 시스템 안의 문화 상품에게 일정한 소비 주기는 필수적이다. 하나의 문화 상품이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의 상영관이나 공중파 방송의 가요무대를 점유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점은 이런 문화 상품의 소비자들과 쉽게 공존한다. (내가 여기에 찬동한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에 시는? 물론 신간 시집은 특별 매대에 오르고 문예지 같은 곳에 광고를 싣기도 한다. 하지만 시가 빠른 시간 내 비용 회수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후 판매량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산업화된 시스템 안의 문화 상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시는 그러한 시스템의 반대편에서 가장 오래 버텨온 구닥다리 문화의 상징으로 남아있지 않았는가. 게다가 시걸림의 별점 내용은 정작 시걸림 시집의 구매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별점이 시걸림 시집 전부를 싸잡아 평가한 것도 아니며, 해설은 문학과학사 시집의 형식을 따라 맨 뒤에 실려 있으므로 정작 독자들이 별점을 보게 되는 것은 수록된 시를 다 읽은 후가 되는 것이다. 애초에 시의 소비과정이 그렇게 설계되었기에, 이것은 누군가가 "저는 시집을 사면 해설부터 읽는데요."하고 나선다고 바뀌는 문제가 아니다. 짧은 시 한편을 읽는 데 드는 수고마저 별점에 맡겨버리는 독자가 오늘날 시의 소비자라면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계량할 수 없는 것을 수치화하고 그걸 또 시각화하는 별점식의 압축이 시의 소비과정에서 어떤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나는 회의적이다. 누군가는 시라는 '순문학', '고급문화'의 권위를 별점으로 손쉽게 처리하는 데서 카타르시스 같은 것을 느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를 제출한 이들이 미등단 시인들의 임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의미는 크게 퇴색된다. 예부터 순문학의 권위란 지방생을 채내는 데서 원동력을 찾아왔으니까.

"우울, 비판, 쓸쓸함, 상실, 고독, 부재"³ 등을 멀리하고 그밖의 정서들을 돈줄새 김하는 건전가요와 CM송의 세계에서 시는 생존할 수 있을까. 이미 죽은 시들에 독설을 내어놓는 사후약방문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데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일단 논외로 하겠다. 최근에 나는 민주열사의 이름을 딴 문학상에서 "현실과 대결하는 운동을 끈질기게 드러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시 쓰기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다시금 시의 일등 소비자인 시인지방생이 된 셈인데, 시의 수준에 관계없이 내 입맛에는 시 별점이라는 게 영 쓸쓸하더라, 그게 약이 되는 쓴 맛은 아닌 것 같더라는 말만 해두겠다.

1 작년 문학과학사의 패러디 시집인 "우주는 잔인하다"로 독립출판계(와 일부 문인지)영성들 사이에 세세하게 돌고 돌아 1인 출판 브랜드.

2 피코테라, "죽은 시를 살려낸다면, 별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시걸림", 문학과학사, 2014, 153쪽.
3 같은 글, 152쪽.